

# 한인뉴스

7 2018

VOL. 265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Galaxy A6 | A6+**



# MAKE THEM LOOK

**Bokeh Effects with  
Dual Lens Camera\***

More Info:  
[www.GalaxyASeries.com](http://www.GalaxyASeries.com)

\*Dual lens camera hanya tersedia pada Galaxy A6+

Customer Service: 0800-112-8888 (bebas pulsa) (021) 5699-7777 (hunting)



[www.samsung.com/id](http://www.samsung.com/id)



Samsung Indonesia



SamsungID



Samsung\_ID



Samsung Indonesia



## 대한항공과 함께 한국의 사계절을 경험해 보세요

출발	도착	편명	출발시간	도착시간	요일	기종
자카르타	서울	KE628	2205	0715*	매일	77W
서울	자카르타	KE627	1530	2050	매일	77W

\* KOREAN AIR ALSO OPERATES FROM DENPASAR DAILY TO SEOUL & BEYOND



더 많은 정보는, 가까운 대한항공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Jakarta : 62-21-521-2180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 SAINT JAMES FACTORY OUTLET

인도네시아 단일 도자기 최대 할인매장



감각적인 디자인은 물론 초강자기 소재에 무연유약을 사용함으로써  
안전성과 친환경까지 생각하는 프리미엄 테이블웨어

## Factory Outlet

**Pondok Indah Mall**  
Jl.Metro Pondok Indah Blok 3B  
2 floor unit 219, Jakarta Selatan  
Tlp.021-7592-0615

**Lippo Mall Kemang**  
Kemang Village L2-18 Lt2 36P  
Antasari, Jakarta  
Tlp.021-2952-8530

**Jl.Raya Pasar Kemis - Cikupa**  
**Kp Tereup RT 08/02, Tangerang**  
고객문의 : 021-5010-4557~ 9

**Lotte Shopping Avenue**  
Jl. Prof Dr Satrio Kav 3-5 2F floor  
unit 36 Karet Kuningan, Jakarta 12940  
Tlp.021-2988-9215

**Lippo Mall St.Moritz**  
Jl. Puri Indah raya 11610  
Unit No. LG-90  
Tlp.021-2911-1197

[www.saintjames.com](http://www.saintjames.com)



# PT. SEPULUH SUMBER ANUGERAH

EPC GENERAL CONTRACTOR



## 국제기업들이 인정하는 Quality & Safety System을 구축 고객 만족을 위한 최고의 품질

PT. Sepuluh Sumber Anugerah는 25년전 인도네시아에 자리잡은 한인 종합건설 회사로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B2, Grade 7 건설회사로 인정받았습니다.

토목, 건축, 플랜트, 발전소, 인프라 등 건설 관련  
모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Kawasan Modern Industri - Cikande에 규모 5헥타르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수행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하도급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행합니다.

## 건설 전문가가 하면 다릅니다. 25년 전통 한인 종합건설회사 PT. SSA와 함께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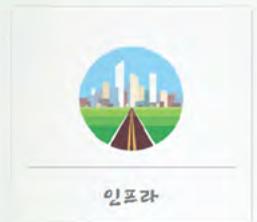
플랜트



토목 건축



발전소



인프라



고객 행복  
추구



신뢰 협력



가치 창출



경쟁력  
전문가

[www.pt-ssa.co.id](http://www.pt-ssa.co.id)

HEAD OFFICE:  
Gedung EQUITY Tower 22A, SCBD Jakarta  
021-5140-2833

WORKSHOP:  
Jl. Raya Jakarta Serang, Kawasan Modern Industri Kav. 6  
0254-4029-47~49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 양영연

편집인 : 전민식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편집위원 : 신돈철, 최인실, 황미리, 황윤홍

전화 : (021) 521-2515, 527-2054

팩스 : (021) 526-8444

주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 <http://www.innekorean.or.id> )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화 : 021-521-2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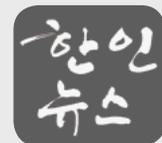
한인뉴스발행인 양영연 배상

가끔 백지를 앞에 두고 한참을 어떻게 써야할 것인지 고민하며  
한 줄의 시작조차 어려울 때,  
저는 잘 쓰려고 하지말고 '그냥 쓰자'라고 힘을 배는 주문을 스스로에게 해 봅니다.

일부러 힘을 쓰는 억지말고 저절로 움직이고, 생각이 끌리고 눈길이 가는 것  
그리고 아무리 움직이고 해내도 그닥 힘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내 것이며 실력일 것입니다.

평소에 축구를 모른 채 사는 저도  
적어도 월드컵에서의 한국전은 챙겨 보며 간절함을 장착하게 됩니다.

16강에 무조건 진출해야 한다는 국가적 책무 앞에 놓인 선수들에게  
조직력을 갖춘 '자기 축구' 를 하라는 것은  
실력과 노력을 동일시하는 우리의 과한 주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 차례

- 8 **논설위원 칼럼 <김문환>**
- 10 **신성철 칼럼**
- 13 **편집위원 칼럼 <황미리>**
- 16 **김종성의 생활 법률**
- 18 **이해창 경제칼럼**
- 20 **ANEKA MASAKAN KOREA <양소연>**
- 23 **편리한 Car Call APP 를 소개합니다 <편집부>**
- 27 **구월산에 그리움을 묻다 <박혜진>**
- 30 **배동선 작가의 [인도네시아 현대사]**
- 34 **월간뉴스브리핑 <자카르타경제신문>**
- 38 **조선시대의 세책본 댓글 <이민희>**
- 42 **자카르타 맛집탐방 <주윤지>**
- 44 **건강칼럼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 46 **행복에세이 <서미숙>**
- 49 **한국인이 자주 틀리는 인도네시아어 <박경재>**
- 54 **인도네시아 법률해설 (262) <이승민>**
- 58 **BAHASA INDONESIA 그리고 문화이야기 <조은숙>**
- 61 **JIS 소식 <한영진>**
- 65 **생활정보**

### 한인사회 이모저모

- 제 68 주년 6.25 전쟁기념식 26
-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인도네시아국가체육회와 MOU 52
- 문예총 현판식 53



비오는 날 중요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IG:@dqdoodle]



## 어수선한 정치계절



김문환/논설위원

2차대전 종전과 더불어 일본군이 철수하게 되자, 네덜란드는 재통치의 야욕을 품고 영국군을 앞세워 구 점령지에 진주하게 된다. 식민화의 전철을 방임할 리 없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일본군의 무기고를 습격하여 탈취한 일부 총기류를 들고 대적하여 보았으나 역부족이었다. 수카르노는 족자카르타를 임시수도로 정하여 야음을 틈타 기차탈출을 감행하였으며, 수디르만과 나수피온이 이끄는 정부군은 각각 중부자와와 서부자와의 산악지대를 무대로 삼아 게릴라전을 전개하며 4년 5개월 동안 지구전을 이끌게 된다. 결국 ‘마살플랜’을 무기로 삼아 압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위세 앞에 네덜란드는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덴 하그에서 열린 원탁회의에서 1949년 12월 27일까지 완전철수하기로 뜻을 박았으나 서부파푸아 지역에 한해서만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협상을 재개하기로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구 영토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네덜란드는 일년이 지나도 재협상에 대한 의지는 커녕, 친 네덜란드 독립정부를 세울 끈수를 부리고 있었다. 1960년 초에 이르러 네덜란드는 자체적인 선거 실시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에 격분한 수카르노는 대대적인 해방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으며, 첫 단계로 네덜란드인의 자산을 몰수하고 국교를 단절하기에 이른다.

군사적인 수단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수카르노는 동남아국가에 대한 팽창정책을 취하고 있는 소련에 접근하여 받아들인 군사원조에 힘입어 무력침공을 감행한다. 우단트 유엔 사무총장과 번디 미국특사의 적극적인 중재에 힘입어 1963년 10월 1일자로 서부파푸아는 인도네시아령으로 편입되어 2차대전 이전의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전 영토를 회복하게 되어 오늘날과 같은 영토대국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가 방대한 영토주권(NKRI)을 보전해온 데에는 군부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우후죽순처럼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반란사건, 독립운동을 비롯하여 지역패권을 놓고 이해가 상충하던 말레이시아와의 전쟁에도 대통령을 제쳐놓고 비밀 협상을 벌이는 주체는 바로 수하르트 전락사령관 예하의 알리 무르도뽀 대령과 베니 무르다니 중령이었다. 이 밀행이 결실을 보아 9.30 사태 다음해인 1966년 8월 11일 라흐만 말레이시아 수상과 수하르트 대통령 권한대행 사이에 평화조약이 체결된 것이다.

2018년 6월 27일 지자체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현직 지자체장이 입후보하는 경우 유세기간 중 휴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선거법에 따라 주요 주정부 중 한곳인 서부자와 주지사대행에 경찰 현역 3성장군인 이리아완(Iriawan)이 임명되었다. 수하르트 정권 기간내내 유지되어 왔던 군부철권 정치의 핵심수단인 군부의 이중기능(Dwifungsi)이 폐지된 지 14년 만에 다시 부활될 조짐이라

하여 재야 쪽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자 조꼬위 대통령은 현역장성 임명은 현행법상 결격사유가 없다고 강변하며 강행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정부입장에서는 지난 2016년 말 ‘평화행동’이라는 슬로건 하에 결집한 이슬람권 대중시위의 위력을 간파한 반작용인지도 모른다. 조꼬위 대통령은 취임이래 군부지휘권의 정점에 있는 국군사령관을 비롯해 군, 경찰 요직에 자신의 측근 인맥으로 꾸준히 교체하여 왔다. 최근엔 물도꼬 전 국군사령관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앉히기에 이르렀다.

선거철을 앞두고 부패척결위(KPK)도 어느 때보다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줄줄이 구속되는 지자체장들의 얼굴이 언론에 끊임없이 비추이는 듯 한데 월드컵 열기와 8월 아시안게임에 가려 쉽게 잊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 혼란한 시점에 오랜 기간 중동지역에 도피해 있는 이슬람 강경단체 리더인 리직과 메가와띠의 여동생 수끄마와띠의 형사 피의혐의가 맞교환이라도 하는 양 동시에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져 그 배경에 관심을 갖게 된다.

포플리즘성 성격이 내재되어 있던 12일간의 연휴기간도 끝나자 텅 비었던 수도 자카르타의 도로사정도 이제 서서히 악명 높던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기다렸다는 듯이 한 시민단체가 대선후보자격에 관한 국회의석 최저득표제(Batas Ambang)에 대한 헌재소원을 제출하며 피켓을 들고 시위를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멀리 북부수마트라의 유명한 관광지 다나우 또바(Danau Toba)로 부터는 지난 6월 18일 해난참사에 관한 비보가 전해왔다. 60명 정원의 17톤 크기 근해 소형 여객선이 거친 풍랑에 침몰되어 3일이 지난 21일까지도 19명 생존, 3명 사망, 184명 실종 보고가 올라온 것이다. 실종자에 대한 수색작업이 계속 진행되고는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비관적이다.

암울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진다. 미국이 금년에만 벌써 두 차례나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년내에 두차례 인상이 더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자 펀더멘털이 취약한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한국도 환율방어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파다한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으로 내후년 중 경제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인사회를 위해 듣던 중반가운 소식이라면, 오랫동안 보류되어 왔던 석유화학 계통의 L사와 자동차업종의 H사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실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희비가 서로 엉켜 흘러가는 ‘정치 계절’, 이럴 때 일수록 우리 한인사회도 그 혼미 속에 함몰되지 않도록 각별한 마음가짐을 갖출 때이다.



**출항직전의 사고 여객선**  
 ‘시나르 방운호(KM Sinar Bangun)’

# ■ 암스테르담서 자카르타 숨은그림찾기

글 :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중부자바 주 마글랑 지역에 있는 보로부두르 불교사원에서 사라진 불상의 잘린 머리 부분이 암스테르담 열대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네덜란드어로 'GEEN INGANG', 바로 그 아래에 영어로 'NO ENTRY' (출입금지)라고 써놓은 붉은색 표지판.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이민국 입국심사대 입구의 유리문 상단에 부착된 표식이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자카르타에서민들이 사는 '골목' 또는 '통로' 라는 의미의 Gang(강)이라는 단어가 연상이 됐는데, 네덜란드어 사전을 찾아보니 '통로' 라는 뜻이 있었다. 익숙한 단어가 보이는 순간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 샌가 사라지고 암스테르담이 친근하게 다가왔다. 지난 6월 인도네시아 무슬림의 최대 명절인 이들피트리(일명 르바란) 연휴를 이렇게 네덜란드에서 시작했다.

입국수속을 마치고 공항터미널 내 매점에서 음료를 마시며 일정을 정리하는데 인도네시아말이 들렸다. 현지에서 사는 인도네시아사람이 입국하는 인도네시아 지인을 마중 나와 만남의 기쁨을 나누고 있었다. 택시를 타기 위해 공항터미널을 빠져 나오는 동안 인도네시아사람으로 보이는 여러 무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택시를 타고 잘 정돈된 수많은 운하를 거쳐 여장을 풀 호텔에 도착했다.

체크인을 하는데 호텔 1층 로비 안쪽에 마마 마칸(Mama Makan)이라는 이름의 인도네시아식 식당이 반갑게 우리를 맞이했다.

프랑스, 이탈리아와 스위스 등 여타 유럽국가들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네덜란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국가다. 북유럽 특유의 변덕스럽고 을씨년스러운 날씨와 다른 유럽국가와 비교해 문화 유적과 유물이 많지 않아 유럽여행 목록에서 뒤쳐져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다른 유럽 국가를 가기 위해 잠시 들러 박물관 등 암스테르담 주변의 관광지만 살짝 보고 간다.

한국인들에게는 풍차와 튜립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의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 히딩크 정도만 알려져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를 인도네시아와 연관된 나라로 바라보면 여행지로서 매력이 달라진다.

애초 암스테르담 여행 목적이 현지에서 인도네시아의 흔적을 찾는데 있는 만큼 둘째 날 일정은 암스테르담의 명물 전차(Tram)를 타고 종점에서 종점으로 여행을 떠났다. 곳곳에서 인도네시아 음식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도심에 위치한

삼뿌르나(Sampurna)라는 식당 간판을 보고 주저하지 않고 들어가 인도네시아 서부수마트라 음식으로 소고기에 여러 가지 향신료를 넣어서 조리된 ‘른당’ (Rendang)을 주문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빈땅 맥주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으로 보이는 식당주인에게 인도네시아말로 식재료의 조달방법에 대해 묻자,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라고 심드렁하게 답했다. 신중화(新中華)라는 상호의 중국식 식당에서는 돼지고기구이인 ‘바비 빵강’ (Babi Panggang)을 비롯해 여러 가지 요리를 인도네시아식 이름으로 표기했다. 중국계로 보이는 식당 종업원은 내가 자카르타에서 살고 있다고 하니 반가워 했다.

이원복 교수가 쓴 ‘먼나라 이웃나라’ 네덜란드편에 따르면, 2009년 기준 네덜란드의 인구는 1,650만명이며 이중 네덜란드 원주민은 1,320만명(80.6%)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유럽 출신이 143만명, 인도네시아 출신이 39만명, 독일인이 38만명 순이다. 인도네시아인은 식민지배 기간에 유학생, 관리, 고위층 자녀의 신분으로 이주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네덜란드에 협조했던 인도네시아인들이 대거 현지로 도피했다. 지금도 유학과 관광 등을 목적으로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이 네덜란드를 방문하거나 체류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암스테르담의 속살을 엿보기 위해 셋째 날부터 박물관 탐사에 나섰다. 시내 동부 지역에 5층 높이로 웅장하게 서있는 열대박물관(Tropen Museum)은 과거 식민지 개척시대에 인도네시아, 수리남과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탐험가들의 전리품과 수집품들을 전시해 놓은 곳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가져온 수집품의 유물과 사진 등이 전체 전시물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정교한 장식과 화려한 색이 그대로 보존된 전통 의복과 장신구, 끄리스와 와양꿀릿, 섬세하게 조각한 불상과 힌두신상, 그 시절 모습이 생생하게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은 역사·예술적 가치와 보존 상태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박물관 전시품들을 압도했다. 인도네시아관의 20~30%를 차지하는 파푸아 전시관은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에서 파푸아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국립박물관(Rijks Museum)에는 19세기 자바 전쟁의 영웅인 디뵈스고로 왕자를 소재로 그린 ‘디뵈스고로의 왕자의 체포’가 있다. ‘디뵈스고로 왕자의 체포’는 네덜란드 화가 니콜라스 피에네만이 먼저 그렸고, 이후 인도네시아 화가 라덴 살레가 이를 모티브로 자신의 감정을 넣어 다시 그렸다. 대중적으로는 라덴 살레의 그림이 더 잘 알려져 있고, 일부 비평가들은 라덴 살레의 그림이 더 잘 그렸다고 평가한다. 2012년에 인도네시아 국립미술관에서 라덴 살레의 작품을 처음 보았고, 당시 옆에 니콜라스의 그림을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전시회 해설사가 나중에 암스테르담에 가서 원화를 확인하라고 했는데, 진짜 그 말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에 묘한 기분이 들었다.



암스테르담 시내에 있는 인도네시아식 음식점

미술사에서 손꼽히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도 국립박물관 1층에서 볼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전시관 입구에 걸린 있는 고흐의 초상화 작품에는 고흐가 인도네시아 영향을 받아서 색채가 밝아졌다는 설명이 걸려 있었다. 이후 방문한 빈센트 반 고흐 박물관에서는 어두운 톤의 고흐의 전기 작품과 밝은 톤의 후기 작품을 대비해 전시하면서, 그가 일본 화풍, 프랑스 화풍, 열대 식민지 영향 등으로 화풍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가 식민지배국으로서 인도네시아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반대로, 네덜란드도 인도네시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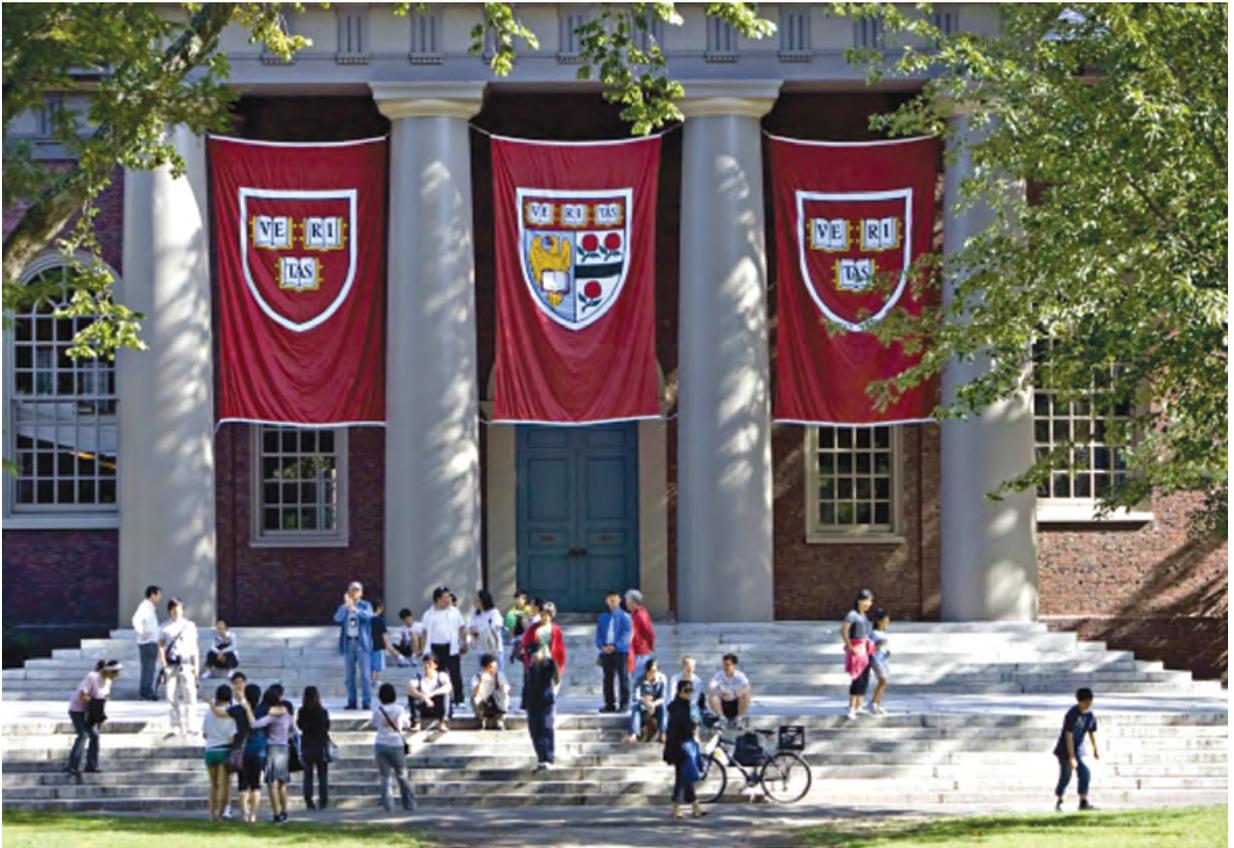
네덜란드 여행을 준비하면서, 자카르타의 옛이름인 바타비아가 네덜란드의 옛 종족의 이름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네덜란드는 16세기 말에 지금의 수도 자카르타인 자야카르타를 점령한 1619년 3월 바타비아(Batavia)로 개칭했다. 바타비아족은 게르만족 계열로 과거 뛰어난 토목기술과 불굴의 의지로 험한 땅을 개척한 것으로 유명하다. 네덜란드는

동인도의 수도를 바타비아로 명명하고 운하와 도개교 등 토목과 건물을 암스테르담의 축소판으로 만들었다. 암스테르담을 거닐면서 계속 자카르타의 꼬따 뚜아(Kota Tua)가 연상되는 이유였다.

네덜란드를 소개할 때 많이 언급되는 장점이 관용이다. 실제로 내가 방문한 박물관의 설명과 읽은 여러 책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지배한 만큼 그리스도교를 강요하지 않았다. 16세기 유럽 종교개혁 시기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우수한 인재들이 네덜란드로 이주했다. 암스테르담 중앙역 광장에 서서 둘러보면 다양한 종교, 인종,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다. 문득 인도네시아가 국민의 85% 이상이 무슬림이면서 이슬람국가가 아니고 지금도 다소 종교와 종족간 분쟁의 불씨가 있지만 다문화와 다종교를 가진 넓은 군도를 통일국가로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네덜란드로부터 이같은 관용을 배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암스테르담 열대박물관에 전시된 파푸아 사람을 형상화한 밀납인형



## 나의 하버드 이야기

글: 편집위원 황미리

싱그러운 봄이 시작되는 5월 - 나는 끊임없는 여름의 나라 인도네시아를 뒤로 하고 봄을 찾아 보스턴으로 향했다. 만 나이 스물 워싱턴 대학을 졸업하고 13년이 흘렀다. 13년동안 기자로 사업가로 바쁘게 달려온 나날들을 돌아보자니 자카르타에서 한국, 한국에서 보스턴으로 향하는 기나긴 비행시간이 그리 길지만은 않았다. 13년만에 밟은 미국 캠퍼스는 언제나 꿈꾸던 하버드였다. 하버드를 가고 싶었던 고등학교 시절 원서조차 내볼 생각을 못했다. 그저 하버드에서 공부하면 어떨까라며 마음속에 숨겨왔던 꿈의 대학에 한참을 돌고 돌아 백팩과 캐리어 하나를 들고 서른이 넘은 나이에 드디어 입성한 것이다.

지금껏 기숙사는커녕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살아본 적 없던 내가 아주 조그마한 기숙사 방으로 들어갔다. 맥아더라는 멋진 이름과 화려한 외부, 응접실과는 다르게 기숙사 방 자체는 5평 남짓 작은 침대 하나 그리고 책상 하나로도 딱 차 캐리어를 놓기 부담스러울 정도였다. 대충 캐리어와 백팩을 내려 놓고 캠퍼스로 나갔다.

쨍한 봄 햇살에 봄 이라기엔 너무 쌀쌀한 바람이 얼굴을 스쳐갔다. 하버드 경영대학 캠퍼스를 한 바퀴 돌고 캠브리지로 넘어가 타과 대학 캠퍼스들, 그리고 하버드 스퀘어를 돌아보았다. 찬바람에 코는 빨개졌지만 열심히 걷다 보니 어느새



몸은 뜨거워졌다. 생필품을 구입하고 하버드 후드 티도 하나 사서 어느덧 캉캉해진 기숙사로 들어왔다. 잠시 설까 했지만 한 달간 수업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두터운 파일 세 개가 책상 위에 놓여있었다. 한참을 읽고 준비하다 보니 어느덧 새벽 4시. 잠시 잠을 잘까 했지만 그마저 시간이 아까워 컵라면 하나를 먹고 찰스강 주변을 달려봤다. 새벽부터 카약을 연습하는 사람들과 달리, 사이클링을 하는 사람들로 찰스강 주변은 북적였다. 참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두근거림과 함께 기숙사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첫 수업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경영대 대강당에는 150여명의 사람들 이름이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돼 있었다. 가장 먼저 도착한 나는 정 중앙에 MiRi Hwang이라는 이름을 보고 가서 착석했다. 그리고 하나 둘 본인 이름을 찾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전세계에서 모인 150명의 사업주 또는 대표직의 사람들이었다. 백인 흑인 황인종 - 국가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부터 나이지리아 인도 브라질 멕시코까지 다양했다. 전세계에서 모인 150명의 대표들 중 여성은 정확하게 10%인 15명, 150명 중 아시아계는 7명이었고 그 중 한국인은 나 혼자였다.

그렇게 올해 봄, 나는 하버드에서 Owner President Management 라는 최고경영자 과정을 시작했다. 3년간 매년 한 달씩 진행되는 최고경영자 과정은 하버드 경영대에서 제공하는 모든 과정 중 가장 높은 과정으로 단기과정 중 유일하게 졸업 후 대학원 학위 수료 및 하버드대학 동문이 된다. 하버드 경영대에는 많은 단기과정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모두 말 그대로 단기이며 수료증이 주어지지만 하버드 동문이 될 수 없다.

150명의 대표들은 4개의 반으로 나뉘어 매일 아침 7시30분 공부를 시작해서 12시간 만인 밤 7시30분 즈음에 일과가 끝난다. 그리고 내일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읽다 보면 매일 새벽 두 세시가 되어야 잠을 청할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하버드 전에 연세대 국제 대학원, GMBA를 비롯해 외대 CEO과정, 기자시절 Insead의 Strategic Management 등 다양한 대학원 과정 및 단기과정들을 졸업했지만 학부시절을 통틀어 이렇게 집중해서 많은 공부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등학교 시절 이런 집중력으로 이렇게 공부했다면 진짜 하버드 학부에 들어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었다. 그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화장기 없는 얼굴로 추리닝만 입고 공부에 치여 살다가 주말 오후가 되면 다시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 입고 뉴욕이든 보스톤이든 밖으로 나가 대표들답게 고급레스토랑에서 와인과 함께 웃고 떠들고 각자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하버드 수업들은 달랐다. 교수님들 한분 한분이 뚜렷한 개성과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을 가졌고 그들의 시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영감은 넘쳐났다. 하지만 그것 보다 더 멋졌던 것은 150명의 동기들이었다. 내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말도 안 되는 이윤을 창출한다던가 믿기 어려운 매출을 달성하는 세계 최고 기업가들이었다.



이윤 10%가 힘든 인도네시아의 건설업을 하고 있는 나는 월 평균 이윤이 78%라는 라스베거스의 사업자라던가 매년 3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멕시코의 사업자의 이야기가 전래동화 같이 느껴졌다. 한명 두명 동기들을 알아가고 차곡 차곡 쌓여가는 수업의 지식들이 내 뇌에 신선한 충격을 매일 전달해주었다. 자카르타에서 국제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한국으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나는 나를 항상 국제적인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국제의 ‘ㄱ’ 자도 모르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 매일 국내외 뉴스를 읽고 새로운 경영 책이 나오면 무조건 읽어 지식을 넓히려 아등 바등 살아왔지만 그 모든 노력은 고작 뒤쳐지지 않을 만큼의 지식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을 하버드에서 나는 깨달았다.

동문들의 프로필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하버드 학부, MBA을 졸업하고 역시 하버드 OPM 과정을 하러 온 동문부터 인도 조그마한 동네에서 태어나 대학 근처도 못 가봤지만 자수성가하여 처음 대학 캠퍼스를 밟는 동문까지 다양했다. 하버드, 옥스퍼드, 북경대를 비롯한 각 국가의 최고 대학 엘리트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약 10%의 동문들은 흠수저가 아니라 수저 자체가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본인만의 노력으로 세상을 일궈낸 자수성가 기업가들이었다.

나는 그 150명 중 성별로 보나 인종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희귀템이었다. 동아시아계 인종 중 유일한 한국인 (나머지는 모두 중국인들이었다), 여자, 서른셋이라는 어린나이 때문이었을까 하버드에 지내는 동안 모든 동문들은 나에게 친절하고 관대했으며 자신들이 깨달은 삶의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주었다. 때문에 나는 비단 공부 때문이 아니라 하버드의 한달이 귀하고 아쉬워 새벽 두세시가 되어 수업자료를 모두 읽고 나면 잠시 눈을 붙이고 다섯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찰스 강을 뛰며 동문들에게 배운 인생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실 난 실로 오랜만에 밟는 캠퍼스라 햇살 쨍한 잔디밭에 여유롭게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책을 읽고 또 캠퍼스 로맨스도 있지 않을까라며 두근거리는 설렘으로 받은 놀러 가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한달 간의 나의 하버드 생활은 전쟁이었다. 끝도 없는 공부자료들과 동기들에게 하나라도 더 배우려 애쓰고 석학이라 불리는 교수님들에게 찾아가 묻고 배우느라 볼살이 쏙 빠졌다.

한달 후 일상으로 돌아오니 북미 타협과 평화 이야기, 대한민국 선거 및 인도네시아 선거, 그리고 나를 기다리던 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한달 간 배운 지식들을 곱씹어 볼 새도 없이 일상에 휩쓸려 버렸다. 한달 간의 배움들은 내년 2월 다시 하버드로 돌아가기 전 천천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변화를 만들겠다는 우리들만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3년째가 되면 동기들 사이에서 희귀템이었던 내가 다른 의미에서 희귀템이 되어야겠다는 약속을 내게 했다. 봄으로 시작했던 나의 하버드 이야기는 3년뒤 봄 다시 봄으로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 "계약직 및 정규직 근로자의 근무기간 산정" Perhitungan Masa Kerja Pekerja PKWT dan PKWTT

안녕하십니까 김 종성 변호사님,

저희 회사는 전자 부품을 생산하여 인도네시아 국내에 납품하는 회사이며 지난 200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관리이사 천 만원이며, 직원은 생산 및 관리직 전부 포함하여 553명 입니다.

그 중 생산부 직원은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직은 전부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직 직원중 한 명이 근무상태가 너무 불량하여 수 차례의 경고장을 부과 하였지만 전혀 개선의 의지가 안 보여서 지난 2018년 3월 30일자로 해고 하였습니다.

그 해고된 직원은 지난 2015년 2월 1일부로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Masa Percobaan)을 거친뒤 2018년 3월 30일까지 관리부 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해고된 직원과 함께 찾아온 LSM의 변호사는 "3년 이상 근무자로서 장기 근속금" (Uang Penghargaan Masa Kerja) 지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해고의 경우 LSM변호사가 주장한 장기 근속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지급해야 한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천 이사님?

인도네시아 노동법(UU No.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 산정에 관하여 별도의 조항을 두어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법 제 60조 1항[(Pasal 60 ayat (1))]을 근거로 정규직의 경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가 있기에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기산일은 수습 종료일 다음 날이 해당됩니다.

만약 서면으로 작성한 근로 계약서가 없고 구두로 합의한 근로계약의 경우노동법 제 63조 1항[(Pasal 63 ayat (1))]에 고용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서 임명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사의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서(PKWTT) 기산일은 2015년 5월 1일이며 해고시 장기 근속금이 규정된 최저 근속기간인 만 3년은 2018년 4월 30일이 되겠습니다.

Q

그런데 그 근로자의 해고일은 2018년 3월 30일이기에 만 3년의 근속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귀사는 노동법 제 156조 3항 a[Pasal 156 ayat (3) a]에 규정된 장기 근속금 2개월분 급여를 해고 보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김 변호사님, 저는 서부 자바에 소재한 봉제회사의 사장 박 노동입니다. 상기 법률자문 잘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경우는 5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직원을 5년 더 근무 시킨뒤 지난 5월 15일 해고 하였습니다. 해고 사유는 지속적인 출근 불량입니다. 문제는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첫 5년간은 3번에 걸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다음 5년간은 근로 중단이나 새로운 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하여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해고한 이 직원 경우 몇 년의 장기 근속자에 해당합니까?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상기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인도네시아 노동법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 산정에 관하여 별도의 조항을 두어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사의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법 제 59조 7항과 노동 이주부 장관령 2004년 제 100호 15조 1항에 근거하여 “법에 의해서 6년째의 첫 근무일부터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 하였으며 해고시 근속일수의 기산점은 첫 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무한 날부터 산정되어서 10년 근속자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Tips.** 계약직 및 정규직 근로자의 근무기간 산정과 관련된 규정은, 노동법 (UU No.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제 1조 14번, 제 50조, 제 56조 1항, 제 59조 그리고 제 156조가 우선 해당됩니다. 그리고 노동 이주부 장관령 2004년 제 100호 (Kepmen 100/2004)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

작성 : 김종성 (변호사/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 임금주도성장 딜레마

글: 이해창 (신한은행 전무)

최근 미국의 한 경제조사연구소에서 발표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한국을 초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의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의 12배가 넘는 점을 감안한다면 양국의 성장을 역전 전망은 다소 충격적이다. 미국이 3% 안팎의 성장률을 바라보게 된 것이 현 미정부의 왕성한 시장경제 활성화 정책 덕분임은 반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 고용율은 66% 수준으로 OECD 평균인 68%보다 낮은수준이며 5월중 취업자 수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 게다가 취업자 증가가 사회복지, 공공행정 등 정부가 만든 일자리를 중심으로 이뤄진 반면 제조업과 도소매서비스업 등 민간 일자리의 감소세가 더욱 뚜렷하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는 ‘소득주도 성장’이다. 가계 가처분 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생산을 늘려서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며 이는 다시 고용증가 및 임금 추가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성장 전략이다. 이와 같은 성장 모델 전략과 함께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책정했으며 2020년까지 1만원으로의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소득주도의 성장이 최저임금 프레임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국가의 소득이 임금만 있는 것

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은 생산, 분배, 지출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경제주체들이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만들어 내는 부가가치의 합계를 ‘생산국민소득’이라 하며 이러한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얻은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 요소 소득의 합계를 ‘분배국민소득’, 그리고 경제주체들이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한 대가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를 ‘지출국민소득’이라 일컫는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여러가지 소득의 카테고리 중 임금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특징 중 하나는 자영업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이미 600만명을 넘어섰다. 1990년 대 중국산 저가제품이 물 밀듯 들어오며 수많은 제조 중소기업들이 자취를 감췄으며 이후 IMF를 거치며 양상된 수십만의 실직자들이 자영업자로 유입되었다. 물론 자영업자의 고비용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업 등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업종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이러한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문제가 맞물려 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업종들이 상당부분 자영업에 속해 있는 상황에서, 임금에만 초점을 둔 소득주도성장론에 따라 최저 임금이 역대 최고인 16.4% 인상된 것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 정도인 상황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상승률이 자영업자에 미치는 체감이 어느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률 만큼 증가하는 인건비 부담에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상승을 이끌기 보다는 오히려 실업률을 높일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하위 20% 소득 가구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바, 인건비 부담에 의한 고용감소가 우려한대로 저소득층을 먼저 타격하게된 만큼 소득주도성장론이 계층간 소득 불균형으로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한편, 가파르게 상승하는 인건비 문제로 더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생산기지의 지방 이전을 고려 할 만큼 인건비 상승은 인도네시아에서 필자가 만난 대부분 제조업체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올해 최저임금을 8.7% 인상하며 2016년까지 11%~17%를 넘나들었던 높은 인상율에서 수위 조절을 하는 분위

기다. 조코위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한 저금리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해온 바, 이는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덕분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이어온 최저임금률 상승에 의해 최근 인플레이션을 상승 징후가 보임과 동시에 제조업 투자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10%를 상회 할 만큼 가파랐던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다소 누그러뜨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론 아직 정책 시행이 1년 밖에 되지 않은 만큼, 정부 의도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 소득을 올리고, 소비와 생산 등을 고무 끌어올리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조절론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최저임금 정책이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패가 좌우되는 게 아니며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쳐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서비스산업 혁신, 영세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보호 등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 삼계탕 Sup ayam dengan ginseng

글: 양소연 (전 KBS World Radio 방송작가)

지난 한 달 동안 편안히 지내셨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름의 한복판 7월에 인사 드립니다. 7월은 복날이 시작되는 달 이기도 한데요, 우리 조상들은 일년 중 가장 날이 더운 이 기간을 ‘삼복더위’라고 부르며 음력으로 초복은 6월 초순, 그리고 10일 간격으로 중복과 말복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평소애 부족했던 단백질을 섭취하여 더운 날씨로 인해 떨어진 기력을 보충해 주는 음식을 먹고 지금의 여름휴가처럼 술과 음식을 준비해서 계곡이나 산에서 쉬며 더운 날씨를 현명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올 해 초복은 7월 17일 입니다. 특히나 더운 날씨에 입맛이 없고 기운이 없는 요즘, 제가 소개해 드리는 복날 음식 ‘삼계탕’ 으로 떨어진 기력과 원기회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재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Bahan-bahan

Ayam muda 1 ekor

Ginseng 2 batang

Beras ketan 1 gelas

Bam atau chestnut Korea 5 biji

Daechu atau Kurma cina kering 5 buah

Bawang putih 10 siung

Buah ginkgo 10 biji

Garam, merica, biji wijen seperlunya

## Cara memasak

1. Pertama-tama bersihkan ayam yang utuh. Buang ususnya.  
삼계탕용 닭을 준비해 내장을 깨끗이 제거해 둡니다.
2. Beras ketan direndam air setelah dibersihkan.  
찹쌀은 씻은 후 물에 담궈 둡니다.
3. Siapkan ginseng yang tidak dikeringkan.  
마르지 않은 인삼을 준비합니다
4. Kupas kulit bam atau chestnut Korea. Dan buah ginkgo digoreng sebentar lalu buang kulitnya.  
밤은 껍질을 까고 겉껍질을 깎 은행은 살짝 볶아 속껍질도 벗겨둡니다.
5. Bersihkan kurma dengan air lalu langsung hilalangkan airnya, dan kupas kulit bawang putih.  
대추는 물에 살짝 행군 후에 바로 물기를 없애줍니다. 마늘은 껍질을 까 둡니다.
6. Di dalam perut ayam masukkan beras ketan, bam atau chestnut Korea, kurma, biji ginkgo dan bawang putih.  
깨끗이 씻은 닭의 뱃속에 불려둔 찹쌀, 밤, 대추, 은행과 마늘을 넣어 줍니다.
7. Jahit perut ayam supaya isinya tidak keluar pada waktu direbus.  
닭이 익는 동안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입구를 요리용실이나 꼬치를 이용해 막아줍니다.
8. Siapkan panci besar dan masukkan ayam dan ginseng dengan air secukupnya.  
Didihkan hingga warna kuah berubah menjadi putih.  
깊은 냄비에 속을 넣은 닭과 인삼을 넣고 닭이 잠길 정도의 물을 넣고 센 불로 국물이 하얗게 잘 우러나올 때까지 끓여줍니다.
9. Setelah ayam sudah matang, angkat dari kompor lalu lepaskan benang atau tusukan.  
닭고기가 다 익은 후 요리용 실이나 꼬치를 빼 줍니다.
10. Tambahkan garam pada kuah sesuai selera Anda.  
국물에 식성에 맞게 소금을 첨가합니다.
11. Sajikan selagi panas bersama garam yang dicampur dengan merica dan biji wijen.  
닭고기를 찢어먹을 소금에 적당량의 후추와 참깨를 섞어줍니다.
12. Samgaetang atau sup ayam dengan ginseng siap disajikan.  
삼계탕이 완성되었습니다.





## 인도네시아 생활필수 편리한 car call APP 을 소개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부르는 어플이 이동수단 서비스로서 보급되어 있고 비교적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카콜 어플은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의 이름과 얼굴이 밝혀지고 요금을 탑승 전 미리 알 수 있는 등 언어의 장벽이 있는 외국인에게도 편리합니다.

### 1. 교통 관련 앱 (Google Map / Waze / Lewat Mana)

해외생활에서 네비게이션 앱은 가장 필수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모르는 곳을 갈 때, 좀 더 막히지 않는 길을 찾고자 할 때 필수적인 교통 관련 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네비게이션 앱은 **Google Map**입니다. 여행이나 출장으로 전세계 어디를 가시든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앱입니다. 다만 이 Google Map이 전혀 힘을 못쓰고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에서는 네이버 지도나 기타 다른 앱을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앱은 **Waze**입니다.

사실 아주 대중적인 앱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제법 많은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Waze가 한국에서는 거의 사용이 안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사용되는 걸 보면,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사용 수준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Waze는 이스라엘에서 만들었고 사용자 참여형 네비게이션이며, 2013년도에 구글에 인수되었습니다. 이 앱의 경우 요즘 공사가 많은 인도네시아 특징 상 유통하는 길이나 일방통행이 자주 바뀌는데 이 바뀌는 길 안내를 상당히 정확하게 알려 줍니다. 구글맵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실시간 교통사고 상황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교통사고 안내는 Waze의 정보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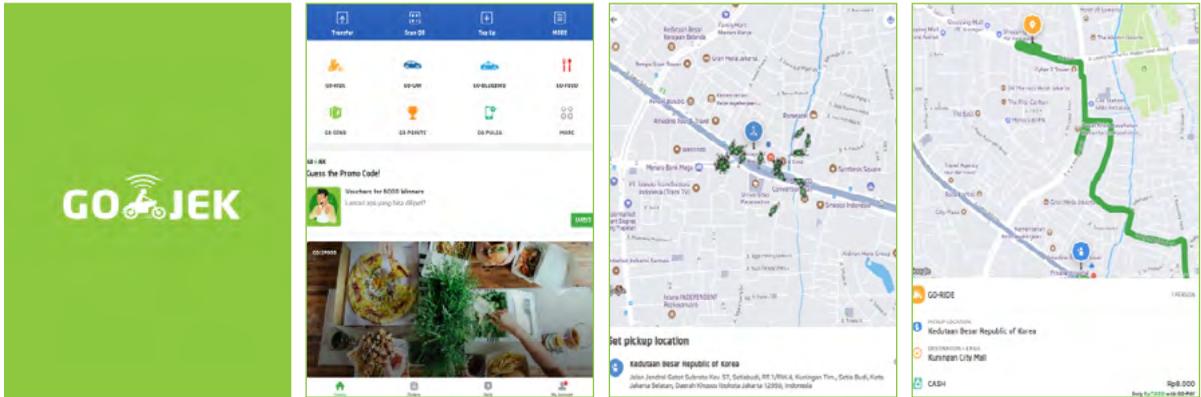
마지막으로는 인도네시아 주요도로의 실시간 상황을 직접 CCTV로 확인할 수 있는 **Lewat mana** 역시 급한 길을 가야 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대중교통 관련 APP (Go-Jek/Grab/Blue Bird)

아침부터 기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 차량 일정이 꼬인 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타기 어려운 인도네시아의 특징상 대부분의 경우 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요즘은 택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Grab**이 등장했고, 오토바이를 이용한 **Go-Jek** 또한 많은 기사와 이용자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만 등록해 두면 항상 문제가 되는 기사와의 잔돈 분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 대부분이 네비게이션을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택시 기사들의 돌아가기 꿈수(?)에서 많이 자유롭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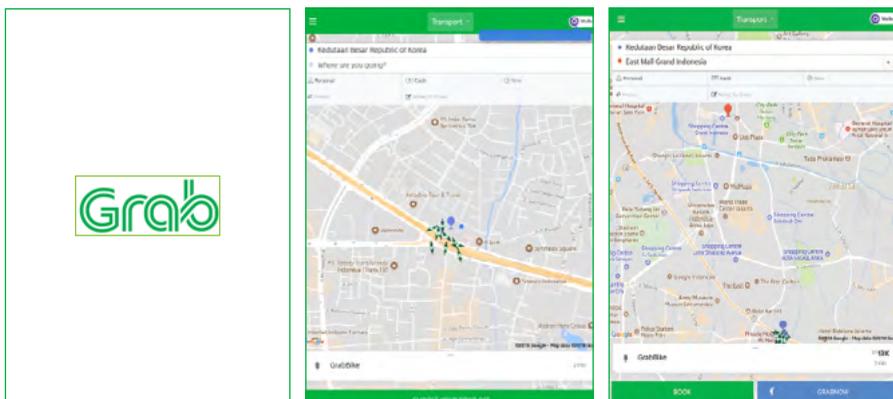
### Go-Jek 고젝 (차, 오토바이)

카콜 뿐만아니라 물건 구매대행, 출장 마사지사를 부르는 등 사람과 물건의 이동에 관하여 여러가지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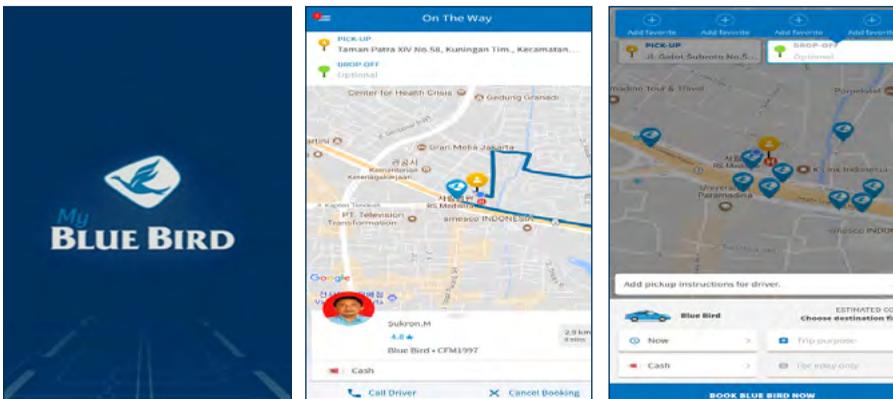
### Grab 그랩 (차, 오토바이)

고젝과 동일하게 음식을 배달하는데도 사용되며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Blue Bird 블루버드

사용하기 전날 예약이 가능하고 도착 전에 확인전화도 할 수 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전날 예약하는 것에 편리합니다.



인도네시아 차량공유 업체 ‘고젝’ (Go-jek)이 태국과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등 주변 4개국으로 해외사업 확장에 나선다고 5월 24일 현지언론에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에만 90만명 이상의 가입 기사를 두고 택배, 배달, 장보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체 금융결제 서비스인 ‘고-페이’ 로 온라인 결제시장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그랩은 올해 3월 우버(Uber)의 동남아시아 차량공유서비스와 음식배달 사업 전부를 인수하고 고젝과 그랩의 양대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입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그랩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8개국가 180여개 도시에서 개인 승용차, 오토바이, 택시, 카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동남아 최대 운송 네트워크 플랫폼입니다.

위 교통수단과 관련된 앱은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랩카의 경우 기사를 찾는 것이 다른 앱에 비해 어렵습니다. 이전에는 가장 불편했던 블루버드가 오히려 가격도 내리고, 서비스도 많이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물건을 보내거나, 음식을 시켜 먹을 때는 고젝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교통앱은 각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상황에 따라 사용하면 가격 면에서도 효율성 면에서도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지옥으로 불리는 인도네시아의 상황에 어울리게 다양한 교통과 관련된 앱들을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직도 택시만 불러서 타고 다니시나요? 이제 그랩으로 더 편안하게 자카르타를 왕래하십시오.

또한 Go-Jek의 경우에는 물건 운송 뿐 아니라 장보기, 특히 음식배달에서는 나름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피자만 시켜 드시고 계시나요? 더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집에서 시켜 먹어 보십시오. 준비할 것은 음식 비용과 여러분 손 안에 있는 핸드폰이면 충분합니다.





# 제 68주년 6.25 전쟁 기념식 및 나라사랑 글짓기대회 시상식

‘나를 대신한 지난 세대의 눈물’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기억하고 평화의 가치와 통일  
의 염원을 다지는 제 68주년 6.25전쟁 기념식  
및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시상식이 한국자유총연  
맹 인도네시아지부(회장 배연자) 주최로 6월 23  
일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됐다.

현상범 고문의 한 6.25 미국참전군인의 어머니  
께 드리는 편지글 낭독으로 기념식의 문을 열었다.  
각계의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과 자카르타 한국국  
제학교(이하 JIKS) 학생과 학부모, 인도네시아  
대학생 등이 모인 가운데 이 날 행사는 시상식 및  
다양한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배연자 회장은 “전쟁이라는 단어는 이제 한반도  
에서 사라져야하지만 6.25전쟁은 아프지만 기억  
해야하는 역사이다. 내년에는 호국, 보훈의 내용  
으로 이 기념식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고 말했다.

전조영 공사는 축사에서 “한반도 화해와 평화의  
정착까지 하나하나 한민족의 정신으로 해결해나  
가며 극복함으로 공동번영을 이루자” 고 말했다.

수상자가 직접 수상작을 읽는 특별순서에 아나  
스타샤(UI 한국어과2) 특별상 수상자는 “평화의  
상징이 된 한반도에 박수를 보내며 자카르타-팔  
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남북한 단일팀이 다시 한번  
뭉쳐서 멋진 경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대상을 받은 박혜진(JIKS 11) 학생은 어머니를  
통해 들은 외할아버지의 6.25 참전이야기를 가족  
의 눈으로 따뜻하게 써내려가 대상의 면모를 보였다.

참전국의 국기 기수단 행진과 JIKS 학생들이 준  
비한 가야금연주(차정민)와 K-POP 댄스 등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 수상자 대상: 박혜진(JIKS 11)
- 최우수상: 초등부 유성현(JIKS 5)
- 중등부 류현지(JIKS 11)
- 박미소(JIKS 10)
- 성유림(JIKS 9)



## 구월산에 그리움을 묻는다

글: 박혜진 (JKS 11)

나는 가끔 이른 아침 등교 길에 새벽 별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어두웠던 지난밤을 저 별은 자기 몫을 다하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구나!”

다시 해가 솟으면 그 자리에 강한 햇볕이 세상을 온통 덮을 테니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돌고 도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황해도 은율군 구월산 아래가 고향이다. 그래서 외가는 실향민 가족이다. 나는 한 번도 우리 외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지만 항상 어머니께로부터 할아버지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곤 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고향 이야기가 나왔는데 엄마가 황해도 은율이 아버지 고향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 산 아래 외할아버지는 맛난 사과 농사가 풍성한 지역에서 전쟁이 나기 전까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던 나와 같은 한 청소년이었을 거다. 나는 그날 저녁 식사 이후 엄마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귀에 담고 마음에 담아보니 전쟁이란 아픈이고 상처이며 더 나아가 한 가족사를 외롭게 만드는 고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구월산 유격대의 활약상을 열심히 듣고 자라온 엄마는 추억에 잠긴 듯, 나에게 재미있고 생생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할아버지의 고향, 황해도 안악은 황해도의 서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구월산 자락과 대동강하류의 경계에 있어 비옥한 평야가 형성 되어 있는 기름진 땅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쟁의 소용돌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은 서로가 동네를 지키는 사적인 군대를 조직했고 그 당시 소년이었던 그래서 한참 배고플 나이였던 우리 외할아버지는 배가 임신부처럼 모두 짹짹 갈라 지셨다고 했다. 전쟁이 나던 그때 어린 소년은 감자로만 허기를 채울 수밖에 없어서 먹을 수 있을 때 배가 늘어서도록 감자를 먹었고 또 굶을 땐 한없이 굶고 해서 뱃가죽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반복한 까닭에 이미 배는 볼품없이 갈라져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이념의 갈등이 있던 이북의 한 마을에 국가에서 인정하지도 않은 민간인이 모여서 군대를 만들고 나라를 지키려는 일념으로 목숨을 내 놓았던 구월산 유격대의 활약상을 말씀하실 때면 할아버지는 동화 속에서 막 나온 그때의 그 청년 같았다고 한다.

그런 시대를 살아 온 우리의 조상들을 생각할 때에 나는 상상이 잘 안가고 얼마나 배고픈지도 상상이 안 간다. 항상 먹을 것이 풍요로웠던 나는 더욱이 이러한 시대가 불과 우리 할아버지 시대라는 것은 더욱더 실감이 안 나게 되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얇은 바지저고리를 입고 싸웠던 그 구월산의 청년과 민간인들 틈에 함께 했던 그 소년! 지키고 싶던 고향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떨어지던 사과 꽃잎을 주워 담았을 그분의 슬픈 현실에 함께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도 눈부시게 발전을 했기에 추위와 그 배고픔은 아득한 먼 나라의 이야기 같다고 할까? 그러나 살아 있는 전설, 우리 외할아버지가 계시고 그 삶 아래 우리 엄마가 계시니 알 수 없는 허황된 이야기는 아닌 듯 싶었다. 살아생전에 외할아버지는 그토록 고향 땅을 밟아 보고 싶어 하셨다던데, 인도네시아에서 비행기로 7시간 거리에 사는 나도 1년을 못가면 그립고 가고 싶은데 그 맘과 감히 비교를 해도 될까? 아름다운 구월산 아래 맑은 물이 흐르고 오가는 계절의 길목에서 나비가 춤추던 그 추억을 전쟁과 함께 묻고 피난 온 우리 할아버지! 전쟁의 상처는 오른쪽 복숭아뼈가 닳아 지도록 아프셨을 기억이 되고 더 나아가 친척이 별로 없어 쓸쓸한 유년시절을 보냈을 우리 엄마도 전쟁의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우리 엄마는 이북 만두를 참 좋아하신다. 생전에 명절 때마다 만두 빚는 일이 온 가족의 행복한 노동이었다고 회상 하시니 나도 언젠가 통일이 되고 명절이 오면 직접 이북 만두를 빚을 수 있는 뜻깊은 만두 빚기를 해보고 싶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자라나는 우리 세대가 잘 배우고 다듬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정신적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단 된 조국을 안고 오랜 세월 살아야 할까? 깊이 고민 하게 된다.

아직도 살아 계셔서 꿈에 그리는 고향을 못 가는 많은 실향민이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통일이라는 꿈같은 현실에 기대어 서 있다면 저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큰 선물이 하루빨리 주어졌으면 좋겠다. 구월산 유격대 전우들은 온데 간데 없이 흩어져 전우들을 서로 많이 그리워했을 것이다. 그들처럼 할아버지는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이고 그 눈물을 닦아줄 가족도 없어 외로웠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남한 땅에 내려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부모 형제와 떨어져 고향 땅을 노래 부르던 그 간절함을 버티며 하루가 가고 일 년이 가고 수십 년이 가버린 후 결국 그리움을 묻고 헛헛한 생을 마감하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물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낸다. 그것은 부모님이 나대신 눈물겨운 삶을 대신 살아주기 때문이다. 나 또한 부모님이 나대신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때문인지는 몰라도 현재 우리 젊은들이 눈물 없이 사는 것은 바로 지나간 세대의 눈물겨움이 오늘의 우리를 지켜 준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내가 등교 길에 본 새벽 별처럼 그 분들도 자기 몫을 다하고 떠난 그 별이라 생각하니 가슴 한 구석에 나는 또 새로운 희망의 빛을 품어 본다.

요즘 남북 대화의 창이 다시 열리는 듯 보인다.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분쟁과 오해와 분노가 이제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봄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과거와 연결시켜서 전쟁이라는 연장선상에 두지 않고 이제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세대가 모두 통일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수한 피를 흘렸던 전쟁의 희생자들과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 형제를 잃고 살아온 전쟁의 고아들, 우리 외할아버지처럼 전쟁의 한 끝자락을 함께했던 고달팠던 그 분들이 평안히 잠들 수 있도록 평화통일이 하루 빨리 우리 땅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



# 수카르노의 일생을 통해 본 인도네시아 현대사

## 독립전쟁 전화



렝콩기념비에 새겨진 전투장면

지난 호에 이어

일본군으로부터 무기를 확보하는 일은 인도네시아군에게 있어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고 사실 1945년 11월 인도네시아와 연합국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인도네시아 영토 내의 일본군과 전쟁포로들의 송환이 인도네시아의 소관이었으니 일본군 무장해제 시도 역시 문제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연합군은 명령체계를 통해 일본군이 인도네시아군에게 항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린 상태였으므로 천황과 대본영까지 항복한 마당에 무사귀국을 바라는 일본군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연합군의 명령을 감히 어길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일본군 무장해제는 인도네시아 측의 무력시위를 동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때로는 충돌과 교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오합지졸을 이끌고 와 우선 말로 일본군을 무장해제시켜 보려 한 17세의 다안모곳 소령이 너무 순진했던 것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가 아베 대위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평화적인 무기인수를 위해 렝콩의 일본군과 여러 번 접촉하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 노력했고 아베 대위와도 나름대로 안면을 튼 사이였다. 단지 아베 대위가 녹록치 않은 남자였을 뿐이다.

다안모곳 소령은 요구사항을 설명했지만 아베 대위는 무장해제 명령을 받지 못했으므로 자카르타의 상급부대와 연락할 시간을 요구했다. 아베 대위가 무엇 때문에 시간을 벌려 했던 것인지, 그가 말한 상급부대란 자카르타의 일본군 부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고르에 설치된 영국군 여단 본부를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가 인도네시아군의 무장해제시도에 대한 대응 프로토콜을 사전에 휘하 병력들에게 지시했는지도 분명치 않다. 한편 다안모곳 소령이 아베 대위와 얘기하는 동안 왕성한 혈기를 참지 못한 수비안또 소위와 수또뽀 소위가 생도병력과 함께 병영안으로 진입해 임의로 일부 일본군 병사들을 무장해제 시키며 확보한 무기들을 트럭에 싣는 중이었고 일본군 역시 대체로 협조하는 편이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군은 일본군 병사 40여명을 연병장에 모아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총격이 시작되었다. 감쪽같이 은폐되어 있던 세 군데의 비밀초소에서 개활지나 다름없는 연병장 한가운데의 생도들에게 비 오듯 총탄세례를 퍼부었던 것이다. 생도들을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속절없이 피격되어 쓰러졌고 연병장에 나와 있던 일본군은 아직 트럭에 다 실리지 못한 무기들을 다시 빼앗아 들고 생도들을 겨누었다. 전투경험이 풍부하고 자동화기로 무장한 일본군 앞에 생도들이 주력을 이룬 인도네시아군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이 전투는 총격전으로 시작되어 서로 근거리에서 수류탄을 던지다가 마지막엔 백병전으로까지 맞붙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다안모곳 소령이 협상테이블을 박차고 나가 전투를 중지시키려 했으나 이미 상황은 건잡을 수 없이 전개되고 있었다. 그와 동료 장교들, 그리고 하사관의 지시에 따라 땅거랑 사관생도들은 일본군 병영 뒷편 령꽁숲이라 불리는 고무나무숲으로 퇴각해 들어갔다. 숲속에서 생도들은 간신히 엄폐물을 찾아 몸을 숨길 수 있었지만 연병장엔 피격된 동료들이 수없이 널브러져 있었다. 인도네시아군은 일본군을 상대할 만한 무기나 탄약이 결정적으로 부족했고 그나마 그들은 보유한 터니카빈소총은 탄환규격이 일정치 않아 쉽게 약실이 막혀 소총이 먹통이 되곤 했으므로 일방적으로 공격해오는 일본군에게 적절한 반격조차 하지 못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전투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 전투에서 다안모곳 소령은 가슴과 오른쪽 허벅지에 총상을 입고서도 옆의 기관총사수가 피격되자 자신이 기관총을 집어 들고 응전하다가 집중사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다안모곳 소령을 비롯한 3명의 장교와 33명의 생도가 이 전투에서 전사했고 10명의 생도가 중상을 입었으며 위보위 소령을 비롯한 다른 20여명의 생도가 일본군에게 생포되었다. 전사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총격으로 부상을 입고 연병장에 쓰러진 인도네시아군들을 일본군이 일일이 확인사살 하거나 대검으로 찔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생도들 중 세 명이 가까스로 전역을 탈출해 다음 날인 1월 26일 아침 땅거랑 4연대본부에 령꽁상황을 보고할 수 있었다. 일본패망 후에도 인도네시아 주둔 일본군은 현지 소규모 전투에서 인도네시아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군의 승리라기보다는 그들에게 항복 불가지침을 내린 연합군의 승리임에 다름없었다. 다안모곳 소령을 비롯한 인도네시아군 전사자들의 유해는 일본군 병영 근처에 임시로 매장되었다가 며칠 후인 1월 29일 인도네시아군에 의해 발굴되어 정식으로 재안장 되었다. 그들의 묘소는 땅거랑 소년원 인근에 마련되었고 땅거랑사관학교



영웅생도묘지공원



전 전략특전사령관이자 현 그린드라당의 당수 **쁘라보워 수비안또**

의 장교들은 물론, 군연락사무소, 수판 샤리르 총리, 외무차관 아구스살림, 그리고 전사한 생도들의 가족들이 장례식에 참석했다. 다안모곳 소령에게는 하자리싱기라는 아름다운 연인이 있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 10대 연인들이 어떤 사랑을 속삭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집중사격을 받고 산화한 다안모곳 소령의 처참한 주검을 마주한 어린 여인에게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가 연인을 떠나 보내며 줄 수 있었던 마지막 선물은 허리까지 닿는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 함께 안장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후 다시는 머리를 길게 기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들이 재안장된 곳은 ‘영웅생도묘지공원’이라 불린다.

**이 묘지공원 입구의 기념비에는 다음과 같은  
식귀가 새겨져 있다.**

**Kami bukan pembina candi  
우리는 사원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Kami hanya pengangkut batu  
우린 단지 벽돌을 나르는 사람들일 뿐이다. Kamilah  
angkatan yg mesti musnah  
우린 반드시 죽어 없어져야 할 세대이다.  
Agar menjelma angkatan baru di atas kuburan kami  
telah sempurna  
그래서 우리의 완벽한 무덤 위로 새로운 세대가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헨리엣 롤랑 홀스트의 시를 적은 종이쪽지가 령공 전투에서 사망한 수비안또 죠조하디꾸수모 소위의 주머니 안에서 발견되었던 것이다. 원래 네덜란드어로 된 시를 나중에 로시한 안와르가 인도

네시아어로 번역한 것인데 한 네덜란드 시인의 사상이 그들과 대적하던 인도네시아군 장교의 모토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 사뭇 아이러니하다.

사족이지만 이 사건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도 후세에 유산을 남겼다. 위의 시를 적은 종이쪽지를 가지고 있던 수비안또 소위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지난 2014년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맞섰던 전 전략특전사령관 뿌라보워의 작은 아버지였다. 뿌라보워의 아버지는 막내아들의 이름에 령공 전투에서 스러진 동생을 기려 ‘뿌라보워 수비안또’라는 이름을 완성했던 것이다.

### 독립전쟁 점화

독립선언 당시 인도네시아 주둔 일본군의 상황을 설명하려던 것이 좀 길어졌다. 독립선언서 낭독 후 국제사회로부터 인도네시아의 주권을 승인받고자 했던 수까르노는 자신이 적극적 일본군 부역자였으며 수백만 명의 로무샤 징용에 발 벗고 나선 민족역량본부 PUTERA의 의장이었다는 전력이 연합국들과의 관계에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환심을 사기 위해 수까르노는 총리가 행정전반을 담당하고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수반으로 존재하는 내각책임제 정부를 구성하기로 하고 1945년 11월 14일 수판 샤리르를 첫 총리로 지명했다. 또한 총리와 내각은 대통령이 아니라 중앙 인도네시아 국가위원회(KNIP)에 복무하는 형태를 띠었다. 대통령의 권한 상당부분을 총리와 국가위원회에 이양한 것이다. 수판 샤리르는 수까르노에게 있어 오랜 동지이자 잠재적



수판 샤리르 초대총리

라이벌이었지만 유럽에서 학업을 마친 엘리트 정치가였고 일본에 부역한 적 없이 오로지 항일투쟁 선봉에 있었던 인물이었으므로 연합군의 입맛에 딱 맞는 인선이었다.

그러나 과거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 민간정부(NICA)의 군대와 행정가들이 영국의 비호를 받으며 인도네시아로 귀환하기 시작한 것은 불길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석방된 네덜란드군 전쟁포로들을 재무장시켜 인도네시아 일반 시민들과 경찰들을 상대로 막무가내의 총격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공화군과 연합군 사이에 무력충돌이 촉발되었는데 11월 10일 수라바야에서 영국령 인디아 49 보병여단과 제대로 무장을 갖추지도 못한 인도네시아 민병대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졌고 영국군은 공습과 함포사격으로 수라바야 일대를 초토화시켰다. 이 전투에서 팰러비 여단장을 포함해 300여 명의 영국군이 전사한 반면 인도네시아군의 사망자는 수천 명에 달했다. 자카르타에서도 심심찮게 총격전이 벌어졌고 샤리르 총리에 대한 네덜란드인 건맨의 암살시도도 있었다. 수카르노와 그의 정부는 영국군 사령부와 의 위태로운 동거를 끝내고 1946년 1월 4일 자카르타를 떠나 보다 안전한 족자로 옮겨가 그곳 술탄 하멩꾸부워노 9세의 절대적 지지와 보호를 받게 된다. 족자는 1949년 독립전쟁이 끝날 때까지 공화국 수도로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샤리르 총리는 적진과 다름없는 자카르타에 남아 영국과의 회담을 계속 진행했다.

1945년 하반기부터 1946년 초반까지 벌어진 초기 전투들을 통해 영국군은 자바와 수마트라의 항구도시 대부분을 수중에 넣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자바와 수마트라를 제외한 외곽도서들은 일본 해군의 제56 남방함대가 관할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은 독립선언 후에도 공화국의 행정력이 잘 미치지 않아 호주군과 네덜란드군이 별다른 저항도

받지 않고 이 지역의 도서들을 1945년 말까지 비교적 쉽게 접수할 수 있었다. 물론 이 구스띠 구라라이(I Gusti Ngura Rai)의 발리항전, 남부 술라웨시의 봉기, 남부갈리만탄 홀루강 전투 같이 강력한 저항이 벌어진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다.



이 구스띠 구라라이 중령은 네덜란드 사관학교 출신으로 BKR군 초창기 멤버였고 1946년 3월 초 발리에 상륙한 네덜란드군 2천 명을 상대로 싸우다 그해 11월 20일 마르가나라 전투에서 격전 끝에 전멸했는데 이런 발리식 옥쇄를 ‘뿌뿌판’(Puputan)이라 신성히 여겨 발리에는 그를 기리는 동상이 서 있고 발리 덴빠사르 공항과 5만 루피아권 지폐에 그의 이름과 초상이 각각 등장한다.

하지만 극단적 군사력 열세에 몰린 인도네시아 만큼이나 영국과 네덜란드도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두 나라 모두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본국의 전후복구가 막 시작되고 있었으므로 외국에 대군을 보내 장기간 전쟁을 치를 인력도 비용도 처음부터 이미 한계에 닿아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전쟁 전 식민지에서 공짜로 착취해 썼던 값싼 인력과 무궁한 자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다. 그러나 수카르노의 인도네시아 공화국은 연합군의 희망과는 달리 간단히 무릎꿇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래서 시간은 인도네시아의 편이었으나 그 시간을 버는 댓가는 무수한 인도네시아 군인들과 민간인들의 목숨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 2018년 6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 인도네시아, 테러 부추겨온 '죽음의 성직자' 에 사형 선고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며 테러를 선동해 온 인도네시아의 급진 성향 이슬람 성직자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남(南) 자카르타 지방법원은 22일 테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슬람 성직자 아만 압두라흐만(46)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대면접촉과 인터넷에 올린 메모, 음성 파일 등을 통해 다른 이들을 선동함으로써 테러 행위를 저지르도록 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내 IS 연계 테러조직인 ‘자마 안샤룻다울라’ (JAD)의 실질적 지도자인 아만은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가로막는 현행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추종자들에게 정부와 경찰을 공격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는 수마트라 섬 아체 주에 반군훈련소를 세웠다가 2010년 9년형에 처해졌으나 옥중에서 IS 추종세력을 결집해 JAD를 출범시켰다. JAD는 2016년 자카르타 도심 총기·폭탄 테러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테러를 벌여왔다.

작년에는 자카르타 동부의 한 버스 정류장 앞에서 JAD에 의한 연쇄 자폭 테러가 일어나 경찰관 3명이 숨졌고, 지난달에는 대테러 작전을 전담하는 인도네시아 경찰기동타격대(BRIMOB) 본부 구치소에서 테러 피의자들이 무장폭동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동(東) 자바 주 수라바야에서 JAD의 남성 조직원들이 아내와 자녀 등 일가족을 이끌고 교회와 성당, 경찰본부 등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하는 바람에 10여명이 죽고 60여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아만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자신이 직접 지시한 사항이 아니라며 발뺌해 왔지만, 검찰은 연관성이 명백하다며 올해 초 그를 기소하고 사형을 구형했다.

인도네시아내 IS 추종자 가운데 사형이 구형되고 선고까지 이어진 사례는 아만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도네시아 당국은 2002년 발리 테러를 저지른 무장단체 ‘제마 이슬라미야’ (JI) 조직원 2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2008년 형을 집행한 바 있다.

## 수라바야 자폭 테러 후 한 달… 비판과 대책 잇달아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일대에서 지난달 13~14일 기독교 교회와 경찰을 겨냥한 연속 자폭 테러가 발생한 후 한 달. 9세 소녀를 포함한 일가족이 테러에 가담한 형태는 국내외에 큰 충격을 주었다.

정부는 2003년 발리 폭탄 테러 사건 직후 시행된 이래 15년 만에 반테러법 개정안의 통과를 서둘렀고, 과격 사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감시 강화 등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조꼬위 대통령은 자폭 테러가 발생한 직후 일련의 테러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테러의 정의’를 둘러싼 정파 간의 논쟁 속에 의회에 장기 계류 중인 반테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개정된 반테러법에는 테러 행위에 참여한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기간을 현행 7일에서 최대 21일까지 연장하는 것도 포함됐으며, 또한 “테러 행위에 대한 대처는 군사 작전의 일부”라고 명기해 일각에서는 수하르토 독재 정권 시절과 같이 군의 발언권이 증가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월의 자폭 테러 이후 국내에서는 테러 계획이 속속 발각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수마트라 섬 리아우주 리아우국립대 캠퍼스 내에서 폭탄을 제조해온 32~34세의 남자 졸업생 3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의회에 대한 폭탄테러 음모를 꾸미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시르 기술연구·고등교육부장관은 “SNS는 학생들이 과격 사상에 몰들 수 있는 상호 작용의 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국가 테러 대책기구와 협력하여 학생들의 SNS에서의 상호 작용을 모니터링 할 방침을 나타냈다.

## 인도네시아 정부, 2019년 경제 성장 '하한선' 근접 예상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경제 성장률이 목표치인 5.4~5.8%의 하한선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자카르타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선진국의 금융 정상화 움직임 등이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청(바빠나스)의 밤방 장관은 고용 창출을 통한 소비 확대로 성장률을 유지할 방침을 제시했다. 그는 “1%의 경제 성장에 45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260만~290만명의 신규 고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인센티브와 인허가 신청 및 발급 절차를 일원화하는 ‘온라인 싱글 쉐미션(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의 도입으로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2019년의 투자 성장률은 13.8~14.7%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페리 와르지요 총재는 국제 경제의 장래가 불투명한 것을 배경으로 내년 경제 성장률이 5.2~5.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 에너지광물자원부, 2019년에 연료보조금 25조 루피아로 설정할 것…2018년보다 3배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2019년도 예산안에 연료보조금을 25조 루피아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 유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연료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018년도 연료보조금 8조 루피아에서 3배 가깝게 설정된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7일자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의 공식 원유 가격(ICP) 배럴당 48달러에 대한 디젤 연료 보조금을 1리터 당 500 루피아이다. 2019년도 예산안에서는 ICP가 배럴당 70 달러에 달할 것으로 가정됐기 때문에, 1리터 당 보조금은 2018년도 예산에서 1,000루피아

증가한 1,500루피아가 된다.

이 밖에 정부는 전력보조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2018년도 예산안에서 설정된 전력보조금 52조 6,600억 루피아에서 2019년에는 53조~58조 루피아로 올릴 계획이다. 국영 전력 PLN의 사르위노 이사(재무 담당)는 “전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적절한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경찰과 군인, 공무원의 월급도 인상할 계획이다. 이 같은 예산 증액에 대해 야당 관계자는 “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재선을 목표로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印尼 중앙은행 총재, “신흥시장 영향 고려해야”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연준이 신흥국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수장의 공개 발언이 주목되고 있다.

페리 와르지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총재는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한 인터뷰에서 “모든 국가가 국내 여건에 바탕을 두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결정하는) 조치들이 다른 나라, 특히 신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2주 전 취임한 와르지오 총재는 “소통은 아주 중요하다”며 “연준의 정책을 시장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중앙은행도 이를 예상하고 자신들의 정책 결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연준이 그들의 정책 의도를 더 분명하게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각국 중앙은행은 자국의 경제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만큼 신흥국 중앙은행 총재가 미국 중앙은행에 사실상 금리 인상을 성급하게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얼마나 어려운 정책적 선택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지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풀이했다.

## 수카르노-하따 제 3터미널에 ‘드라이브 스루 픽업 존’ 설치

인도네시아 국영 공항 운영사 앙까사 뿌라2(PT Angkasa Pura2, 이하 AP2)는 수도 자카르타의 관문 수카르노-하따 국제공항의 제 3터미널에 도착하는 국내 승객을 픽업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픽업 존’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베스터 데일리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터미널에 있는 주차장에 전용 존을 마련함으로써 차량의 혼잡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국내선 제 3터미널에 도착한 승객들은 여객 터미널 1층에서 수하물을 수령한 후 3층까지 올라가 주차 빌딩과 연결된 출구 근처에서 픽업 차량을 기다려야 했다. 이 때문에 도착 승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주차 공간을 찾는 픽업 차량들로 넘쳐 혼잡이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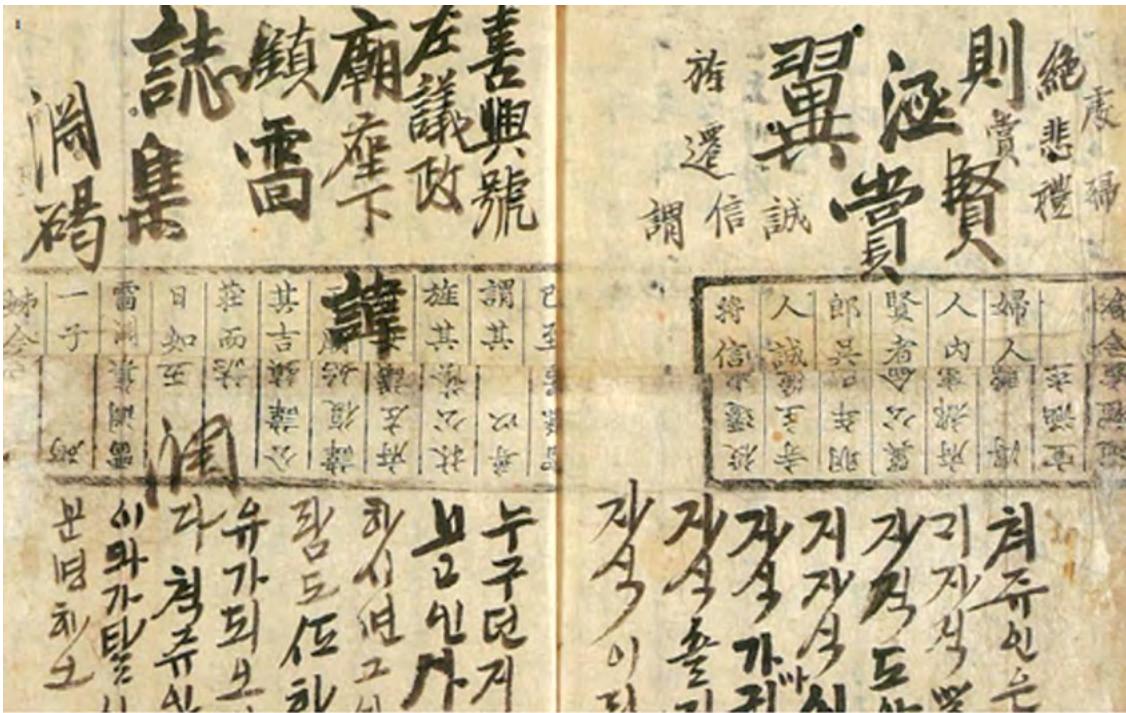
픽업 존이 주차장 건물 1층에 설치됨에 따라 픽업 차량은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분리돼 이러한 혼잡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 시간은 매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다.



## 쌍방향 의사소통 문화

디지털이 발달한 오늘날, 댓글은 여론 형성에 있어 양날의 검과 같다. 익명성에 기대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에 특정 사안에 대한 반응 수렴이 용이한 반면, 선동 또는 조작에 의해 왜곡될 여지도 있다. 전자의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한 여과 없는 ‘날것 인터뷰’, 곧 솔직한 반응을 확인할 수도 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오늘날 댓글 조작 사건이 미치는 사회적·정치적 파장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폐해는 심각하다 못해 국론 분열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

글. 이민희(강원대 국어교육과)



## 조선시대 세책본의 댓글

조선시대에 댓글이 있었다고?

이런 댓글이 조선시대에도 성행했다. 세책점(貫冊店, 도서 대여점)에서 빌려 읽던 소설책 속 낙서가 대표적이다. 책의 표지나 속지, 본문 속 여백 등 공간이 있는 곳 어디에든 낙서를 가해 놓은 것이 보이는데, 거기서 당대 독자들의 비평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을 수 있다. 세책본 소설에 대한 독자 반응뿐 아니라 당대인들의 관심사와 의식 상태까지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세책본에 적힌 댓글들은 세책(도서 대여)을 매개로 한 공론장(公論場)과 같았다고 할 것이다.

일정한 주제에 대한 비판적 댓글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실물이 전하는 세책 소설만 해도 총 90여종에 이르고, 여기에 남겨진 낙서만 해도 1,500여 건이나 된다.(유춘동, 2015) 세책본 소설 속 낙서야말로 책 대여자가 책을 매개로 남긴 의견, 곧 아날로그 댓글과 같다.

## 조선 후기 세책본 댓글 요지경

그렇다면 세책본 소설에 담긴, 그 많은 낙서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대별해 보면 다음 과 같은 특징이 보인다.

첫째, 책 주인에게 대여료가 비싸다거나 일부로 분책해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소설책 자체에 불만을 토로하는 ‘불평형’ 댓글이 그러하다.

- ◆ 책 주인 들어보소. 이 책이 단권인 책을 네 권으로 만들고 남의 재물만 탐하니 그런 잡놈이 또 어디 있느냐?
- ◆ 이 집 책을 세 번만 갖다 보면 책 보는 사람의 집 기둥뿌리가 간 데 없고 네 번만 보면 거지 되어 쪽박을 차고서

둘째, ‘재미는 있으나 잘못된 글자와 낙서가 많으니 다시 보수하라’ 는 식으로 세책업자를 상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칠 것을 주문하는 ‘훈계형’ 댓글도 적지 않다.

- ◆ 이 책 주인 보소. 이 책에 낙서가 많으니 다시 보수하여 세를 놓아 먹거라.

셋째, 훈계형 글 뒤에는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성 욕설이나 비판이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책 주인의 조상이나 모친을 들먹이거나 다른 고객을 대상으로 궤변에 가까운 욕설을 가하는 ‘욕설형’ 댓글이 많다. 이때 욕은 성(性)적인 것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 ◆ 이 책 주인은 불지어다. 책이 재미있어 잘 보았다마는 책 주인의 모(母) 생각이 절로 나서 기별하오. 니 부디 네 어미를 단장시켜서 이 글씨 쓰신 양반에게로 시집 보내라.

넷째, 음화 등 저속하고 풍자 가득한 그림으로 욕설을 대신하는 ‘음화형’ 도 있다. 남자의 성기를 그린다거나 인형극 『꼭두각시놀음』에 등장하는 나체 인형인 흥동



지를 그려 놓고 ‘조그마한 흥동지’, ‘큰 흥동지’ 라고 적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그 한 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중 화장실이나 대학 화장실의 벽과 문에 온갖 음화와 욕설, 그리고 사회 비판 메모 등이 유행했었는데, 그 내용과 낙서 심리가 세책본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섯째, 오늘날 인터넷상의 댓글마냥 이전 사람이 남긴 낙서에 대해 꼬리를 물고 답을 하거나 의견을 덧붙이는 형식의 ‘리플형’ 도 있다. 예를 들어, ‘이 책 보는 사람 개자식’ 과 같은 욕이 많이 보이는데, 여기에 이어 ‘이것 쓴 사람 개자식’ 이라 쓴다거나 ‘이 글시 쓴 자식은 개자식의 자손이니 누구든지 그리 아시오’ 라거나 ‘만약 이 낙서 보고 욕하는 놈은 내 아들이라’ 는 식으로 조금씩 말을 바꿔가며 댓글에 대해 댓글을 다는 표현이 그렇다.

여섯째, 당대 인물과 사건에 대해 시사적 의견을 개진한 ‘시사형’ 댓글도 적지 않다. 시사성이 강한 댓글은 대개 1910년 경술국치 이전 시기에 집중적으로 달린 것으로 보인다. 지식인 또는 당대 정세를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이들이 세책본 소설 지면을 적극 활용해 여론조성과 함께 계몽을 내세웠다.

◆ 차시(此時)가 하시(何時)오? 약육강식하고 우승열패하는 이십 세기라 하노라. (중략) 지금 세계는 강한 자에게 권리를 다 뺏기기 쉽거늘 너는 어찌하여 농상공업을 다 버리고 이따위 되지 못한 책세를 노아 먹느냐.

◆우리 대한민국 이천만 동포들아. 언제나 자주 독립하여 일본을 함몰하여 다 죽이고 언제나 대한 동포끼리 살어 볼가. 이 책 보는 동포들은 이 글을 보고 아무쪼록 정신을 차려서 일본을 다 죽이고 삼시다

일곱째, 낙서라고 하지만 글씨 연습을 한다거나 유행가를 적거나 편지(서간) 내용을 옮겨 적는 식의 메모 또는 글쓰기 연습 수준의 댓글들도 자주 보인다. 소설책 제목을 열거해 놓는다거나 ‘가갸거겨’ 를 반복적으로 적기도 하고, 일본어나 영어 등 외국어로 간단한 단어나 무의미한 표현을 적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당대에 유행하던 노랫말을 적어 놓는다든지 판소리 춘향가의 한 대목인 ‘쑥대머리’ 나 잡가 『유산가』 처럼 당대 하층민 사 이에서 인기 많았던 대중가요 가사를 적기도 했다. 편지 쓸 때 자주 사용하는 관습적 표현을 연습 삼아 적어 놓은 것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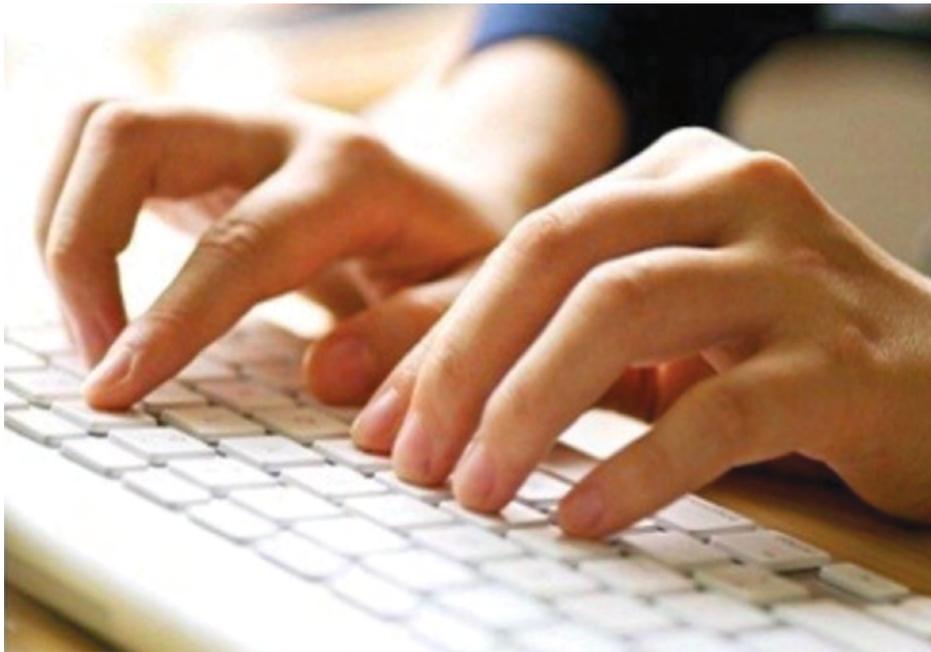
◆ 일기 고롭지 못하온대 존체 안강하옵시며 택내 제절이 두루 안강하옵신지 쥬야 궁금이외다.

여덟째, 세책본 소설책이 낙서와 음화의 공론장이 되는 것을 세책업자가 가만 둘 리 없었다. 낙서 많은 책 자체는 상품 가치가 떨어질뿐더러 댓글로 개진된 비판적 내용에 대해 일정한 해명이 필요하다 싶어 세책업자가 직접 나서서 댓글에 대해 반격을 가했다. 댓글에 대한 일종의 재반박으로 세책업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세책 고객 중에도 낙서가 심하다 판단했는지 고객 입장에서 자정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는 글도 보인다.

◆ 이 책에다가 욕설을 쓰거나 잡설을 쓰는 폐단이 있으면 벌금을 낼 것이오니 이후로 깨끗이 보시고 보내주소서.

◆ 이 세책 보는 사람들은 곱게 보시고, 책에다가 낙서하지 마시고, 책에다가 칙칙하게 글씨 쓰지 마시고, 무식하게 욕설을 기록지 마시기를 천만 비읍니다. 그리고 관민 아사하는 지경에 어찌 이야기책만 보시오.





## 댓글, 성숙한 의사소통 문화의 척도

이 밖에도 댓글의 내용과 성격은 다양하다. 이들 낙서와 음화는 저작권 개념이 없고 작자미상인 책을 빌려다 읽던 세책 독서의 익명성이 초래한, 독자 일반의 가감 없는 의식 표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한적이지만 향유자 쌍방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고, 일정하게 사회적 반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인터넷 댓글과 상당 부분 오버랩된다. 필사자가 필사 중간, 또는 말미에 자신의 소회를 밝히거나 작품 내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품평을 가한 것도 있다. 댓글을 다는 심리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다만 인터넷상이나 세책본 소설책에 댓글을 다는 것은 익명성에 기대어 자기 의견이 지지 받기를 바라는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대면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의사 표출을 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욕망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그러나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이, 악의적으로, 개인의 분풀이용으로 무책임하게 댓글을 다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의사 소통 문화의 민낯을 드러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못하다. 댓글 다는 문화를 통해 조선 후기 신분 사회와 21세기 한국 사회가 여전히 닮은꼴은 아닌지 성찰해볼 일이다.

[출처: 월간 문화재 사랑]





## Chong Qing Liu Yi Shou Hotpot (플루잇 본점)

글: 주윤지(한국컨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안녕하세요!** 한인뉴스 이번 호부터 <자카르타 맛집 탐방> 섹션을 맡게 된 주윤지입니다. 저는 자카르타 거주 11년 차로, 자카르타의 숨은 맛집과 새로운 식당을 찾아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직장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그동안 퐁퐁 숨겨 두었던 제 맛집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믿고 가는 <자카르타 맛집 탐방> 섹션, 기대해 주세요~^^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 드릴 자카르타 맛집은 중국 회귀(중국식 샤브샤브) 전문 식당인 <충칭리우이쇼우 핫팟(Chong Qing Liu Yi Shou Hotpot)>입니다. (식당 이름을 발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존의 일본식 샤브샤브가 지겨워 졌을 때, 삼계탕과 보신탕이 아닌 음식으로 몸보신 하고 싶을 때, 깊이가 있는 국물이 확 땡길 때, 이 식당이 적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샤브샤브 식당은 뷔페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식당은 육수, 고기, 해산물, 야채 등을 각각 주문하셔야 합니다. 샤브샤브의 핵심인 육수의 종류가 총 세 가지(Mala traditional soup, 8 hours bone broth, Chicken soup)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설렁탕처럼 뽀얀 하얀 국물인 8 hours bone broth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처음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홍탕과 백탕을 한번에 경험할 수 있는 Mixed soup를 추천합니다! (참고로 Mala traditional soup에 고추가 많이 들어가 있어 꽤 맵습니다...)

제가 이 식당을 좋아하는 이유는 진한 육수 국물 외에도 소스의 맛이 독특하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종류의 소스가 식당 가운데 놓여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춰 소스를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만, 종업원에게 부탁해서 그들이 만들어 갖다 주는 특제소스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고기의 질과 양, 신선한 야채 및 버섯, 다양한 완자 종류 등 뭐하나 빠질 게 없는 식당입니다. 참 샤브샤브의 마무리는 샤브샤브 칼국수인 것 다들 아시죠? Homemade noodle도 잊지 말고 꼭 주문해주세요~^^ 직접 뽑은 생면이라 쫄깃쫄깃합니다.

굳이 이 식당의 단점을 꼽자면 식당의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식당이 북부 자카르타 플루이트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의 한인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남부 자카르타에서 찾아가기가 다소 멀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기분전환도 할 겸 바다 구경이 하고 싶으시다면 먼 길 오실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질 무렵쯤 방문하시면 식당 앞편으로 바다 배경의 석양이 꽤 멋있습니다. 또, 식당 뒷편에는 여러 대의 요트가 가까이 정박되어 나뭇 불거리입니다.

최근에 서부 자카르타 센트럴 파크 네호 소호에도 분점이 생겼는데 플루이트 본점이 훨씬 맛있으니 참고하세요!



### 식당 정보 : Chong Qing Liu Yi Shou Hotpot

1. 음식 종류 : 중식
  2. 가격대 : Rp 500,000 / 2인 기준
  3. 영업시간 : 월-일 11:00 ~ 23:00
  4. 전화번호 : 0821-6100-7400
  5. 위치 : Jl. Pantai Mutiara, Blok R4, Pluit, Jakarta
- ※ Zomato 참고



# 오일 풀링

## (Oil Pulling Therapy)

사람의 몸은 외부의 모습보다는 몸 안에 세균이나 독소가 없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평소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하는 것도 많은 세균이 손을 통해 입으로 해서 몸속으로 들어갈 때 감기 등 각종 질병이 생기니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일 것이다. 사람의 입 속에는 개보다 세균이 더 많다고 한다. 개의 침에는 사람의 침에는 없는 항체가 들어 있어서 그 항체가 살균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침은 낮동안 생성된다. 낮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만성적으로 입안이 건조해지게 되며 입 안에 있던 세균들이 혈류 속으로 들어가 인체에서 가장 약한 부위에 모여 그 곳에 감염을 일으키게 된다. 어떤 세균들은 관절부위에 침투하기를 좋아하기도 한다. 또한 기관지와 폐에도 손상을 입히게 한다.

입안에서 흔히 발견되는 치주질환 관련 세균들은 임산부의 양수에 까지도 침투한다고 한다. 염증상 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구강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 미생물들이 염증성 장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염증이 전신에 퍼질 경우 온 몸의 골밀도 역시 떨어지게 되어 뼈의 손실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구강내 세균들은 종종 신경 조직속으로 파고들기도 한다. 가끔은 뇌까지 침투해 거기에 감염을 일으키게도 한다. 결국 입 속의 치아 농양이 뇌농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염증은 많은 화학적 변화를 야기하는데 염증이 만성화되면 인체 조직이나 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 감염되는 세균들을 억제하려면 끊임없이 항생제

를 복용해야 하겠지만 세균들은 적응력이 아주 뛰어나 항생제에 곧 내성을 갖게되고 항생제를 무용지물로 만들게 된다.

맑은 시냇물이 흘러가면 파리나 모기 등 어떤 벌레나 세균도 없으나, 물이 웅덩이에 고이면 부패해 있는 동안에는 이런 벌레와 세균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처방하여야 하며, 그것은 부패된 물을 없애고 맑은 물이 흐르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우리의 몸도 근본적인 치유는 앓고 약만 복용한다고 완벽한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입안에 있는 세균들을 없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방법은 “오일 풀링”이다.

오일 풀링을하면 오일이 혀 아래쪽 정맥 속을 흐르는 혈류에서 독소를 빨아내게 된다. 그리고 입은 오일로부터 필수지방산을 흡수하게 된다. 침속에 있는 특수 해독 요소들이 활성화 되어 모든병을 예방하게 된다.

오일 풀링으로 건강이 개선되는 이유는 오일이 입안에서 작용하여 치아와 구강내의 세균 및 노폐물을 제거하여 전신의 면역증강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오일 풀링을 하는 방법으로는 한 스푼의 식물성 오일을 입속에 넣고 입을 꼭 다문채 오일을 치아와 잇몸사이로 입안 전체에 닿겠끔 밀고 당기는 방법을 반복한다. 20분정도 입안에서 오일과 침이 계속 움직이게 하면 된다. 오일 풀링은 오래 할수록 더 효과가 있다. 또한 너무 많은 양의 오일보다 두 티스푼 정도가 적당하며, 침이 분비될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또한 가글링 하지말고 삼키지도 말아야 한다. 20분간 오일 풀링을 할 경우

이런저런 건강 문제들이 사라지지만 그 시간을 10분 이내로 줄일 경우는 문제들이 다시 나타나 효과가 없게 된다. 끝나면 오일을 뱉어낸 다음에는 물로 철저히 입안을 헹구어 남아 있는 오일이 없도록 깨끗이 입속을 씻어낸다. 입과 목이 건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하루에 한번, 가능한 아침 식사전 공복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오일의 종류는 식물성 오일인 참기름, 올리브오일, 코코넛오일, 땅콩오일, 해바라기 씨오일 등 식물성이면 모두 가능하며 그 중에 참기름이 가장 좋다.

오일 풀링을 하면 입안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구취나 두통처럼 비교적 가벼운 질병에서부터 천식이나 당뇨병처럼 중한 질병까지 30여 가지의 전신질환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며, 수명을 크게 연장시키는 데도 기여하게 된다. 오일풀링은 단 한번에 콧속이 깨끗해질 정도로 현존하는 치료법들 가운데 가장 비침투적이며 가장 무해하며, 가장 강력하고도 단순한 치료법이다.

오일풀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질병은 독감, 알레르기, 입냄새, 여드름, 관절염, 천식, 요통 및 목디스크, 당뇨병, 습진, 치질, 고혈압, 불면증, 편두통, 기관지염, 만성피로, 대장염, 변비, 충치, 피부염, 위궤양, 생리증후군, 치주질환, 출농증, 통풍,

신장질환, 뇌졸중, 대상포진, 사마귀, 골다공증, 동맥경화, 암, 폐렴 등 거의 만병 치료법이다.

그 외에도 오일 풀링으로 효과를 본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자.

1. 피부의 기미가 없어지는 등 너무 좋아졌다.
2. 무릎통증도 없어졌다.
3. 1주일 만에 변비가 해소 되었다.
4. 치아 통증이 없어지고 하얗게 변했다.
5. 만성 두통이 없어지고 불면증이 없어졌다.
6. 감기나 잡병도 없어졌다.
7. 생리통도 없어졌다.
8. 머리카락의 빠짐이 줄었다.

오일 풀링이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사람 몸에 있는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 곰팡이들을 다 빨아들여 무병장수하게 한다고 한다. 건강해지는 방법중에 평소 곡채소 위주의 소식을 실천하고, 오일 풀링을 매일 규칙적으로 실천해 간다면 용모도 아름답게 바뀌고, 어떠한 질병도 해소되어 삶의 질에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분들이 꼭 실천해보시기를 권장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오일 풀링 (브루스 피레 지음)

(제공: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 여행이 주는 선물



서미숙 / 수필가, 시인(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장)  
gaeunsuh@hanmail.net

아! 여행의 계절을 맞이했다.

적도의 열대나라인 인도네시아에 오래 살다 보니 계절이란 것이 내가 마음속에서 느끼면 그것이 곧 계절이 되는 것 같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던가?

인니에 살면서 해마다 주어지는 이슬람 라마단의 기나긴 휴일이 언제부터인가 이곳에 사는 한인들에게 마음의 빗장을 열고 편안하게 감성을 쫓아 여행을 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 되어버렸다. 마치 길게 늘어져있는 수양버들처럼 심신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 말이다. 사실 나는 사람들이 흔히 물어보는 취미 중에서 여행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다.

어쩌면 움직이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는 나의 게으름도 한 몫 하겠지만, 아마도 잘 정돈되어있는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사색하고 글쓰기를 더 좋아했던 내 성향 탓도 있었던 것 같다.

아주 오래 전 대학시절의 기억이지만 사찰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던 그 때, 여름방학이면 혼자서 유서 깊고 역사적인 사찰을 찾아 떠나보는 것이 유일한 나만의 여행경험이다.

그 후로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내 성향과는 상관없이 아이들 비전학습 또는 체험학습을 이유로 가족들과 함께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들을 많이 돌아다녔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살게 되면서 이미 고국의 관문을 떠나와 있던 환경적인 영향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즐기며 찰나의 순간이 주는 감동을 맛보게 되고 여행지에서 체험하는 다양한 경험들이 나로 하여금 타국에서의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여행을 하다 보면 아름답고 황홀한 순간에 빠져 그 순간에 영원히 머물고 싶을 때도 있다. 잊지 못할 순간이 안겨주는 매력은 영혼의 울림으로 삶의 에너지가 되어준다.

나는 여행지의 풍경보다 그곳 현지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에 더 관심이 많은 편이다. 현지사람을 만나서 마음으로 소통하고 그곳의 정서와 문화를 알아가는 과정은 또 다른 기쁨이다.

여행만큼 재미있는 일탈이 또 있을까?

여행이 주는 선물은 매일매일 변화 있는 아침을 맞이하면서 낯선 사람들과 새로운 풍경으로 인한 경이로움을 맛보는 일인지도 모른다. 여행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시간에도 그 지역사

람들의 아름다운 미소가 가슴에 박혀 아련한 그리움을 안겨주기도 하니 말이다. 많은 여행지중 하나의 의미로 기억되는 특별히 생각나는 곳은 바로 알프스의 나라인 스위스다. 나는 스위스를 가장 잊지 못한다. 내가 약간의 ‘깔끔병’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정돈된 도시, 그림 같은 대자연의 풍경들과 여유 있고 멋스러워 보이는 그곳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어찌면 내가 노후에 살고 싶은 또 한곳의 외국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게 만든 곳이기도 하다.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스위스의 여러 도시를 다녀보았다. 관광여행이 아닌 가족들과 함께 오랜 기간 자유여행을 즐긴 곳이기도 하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일컫는 인터라켄의 융프라우(jungfrau)산악지대를 오르던 기차 밖, 설국의 풍경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을 설레게 한다. 3,454M에 달하는 융프라우는 눈 덮인 산봉우리와 함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장엄한 풍경들로 인해 하마터면 넋을 잃을 뻔 했다. 대자연의 환상적인 극치를 느끼게 해준 곳, 여행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스위스에는 여러 도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베른, 취리히, 로잔 등의 도시는 유난히 나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있다. 스위스의 수도인 작고 오래된 베른(Bern)은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오래된 도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다. 흔히들 사람들은 스위스의 수도하면 취리히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옛날 요들 송에 많이 나오는 가사중 “아름다운 베르네, ‘맑은 시냇물이 넘쳐흐르네.’ 라는 가사가 있다. 베른이 위치한 이 지역을 그곳 사람들은 베르네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름다운 도시인 베른은 알레(Aare)강이 구 시가지를 U자형으로 감싸고 흐르고 있는데 참 맑고 빛나는 강이다. 베른의 상징인 곰 공원도 인상적이었다. 붉은 지붕이 늘어선 베른만의 독특한 분위기는 짙은 풍경에 달콤한 향기마저 솟아오른다. 이국적인 풍성한 일사귀에 후드득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는 심적 고요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가장 고풍스러운 도시 베른! 중세풍의 건물이 자연과 공존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게 마음에 와 닿았다. 스위스의 맑은 공기와 사람들의 친절함과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그들을 보면서 여행하는 내내 마음이 즐거웠다. 고풍스럽고 고즈넉한 분위기에 그곳에 마음을 놓고 와 버린 듯, 한동안 허전했던 기억이다. 어쩌면 여행을 하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본다는 것은 외형뿐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는 것이리라. 그 풍경이 지닌 내면을 보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보이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가슴은 가난하다. 보이는 것만 취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없다면 우리의 가슴은 금방 허전해질 것이다. 그런 탓일까?

서울의 거리를 지나다 올려다본 어느 빌딩! 글판작가의 말처럼 산다는 것은 더 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것! 정말 공감되는 말이다. 스스로 안으로 깊어지는 풍경을 스위스를 다녀온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야 그 의미를 새롭게 헤아릴 수 있음이 참으로 신기하다. 여행은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다. 젊음의 한때를 보내며 가슴 조이던 봄날처럼 돌이켜보면 우리 삶의 봄날은 오늘도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무수히 찾아온 봄날은 그리움의 열병을 앓아야만 비로소 느낄 수가 있나 보다.

여행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라면 잔잔하게 느끼는 여유로움이다. 여행지에서 만난 아름다운 사람들과 멋스러운 자연과 열매와 잎들은 너무나 오래도록 잊고 살아온 향기, 옛사랑이 깨어난 듯 벅찬 기운들이 그곳에서 되살아난다. 오늘도 또다시 새로운 여행을 꿈꾸며 여행지에서 사온 와인 한잔을 기울여본다. 새로운 풍경과 색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떠올리면 벌써부터 따뜻한 기운이 번져온다. 계절이 없는 인도네시아의 삶에서 밋밋한 도시와 일상의 궤도가 지루하다고 느낄 때면 언제라도 여행을 떠나보라고 권하고 싶다. 이곳 인도네시아에도 가벼운 배낭을 메고 떠날 수 있는 여행지는 무궁무진하다. 수마트라의 토바 호수도 좋고 발리의 절벽사원도 좋으리라.

청아한 음률 사이로 호수와 하얀 산과 낮은 관광객들과 만나고 호숫가에는 긴 줄기에 매달려 있는 보라색 이름 모를 열대의 꽃잎도 보인다. 여행 후에 느끼게 되는 삶의 고독과 상념들은 우리일상의 깊이를 더하고 삶의 공간을 더욱 풍요롭게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인생이란 기나긴 여행이기에...\*

# 한국인이 자주 틀리는 인도네시아어



대박 한국어학원장 박경재  
gurubahasakorea@gmail.com

## 안녕하세요 교민 여러분

르바란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회에서는 “르바란(Lebaran)” 과 “Selamat” 의 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르바란 연휴 전에 한국 학생이 ‘르바란’ 과 ‘이 둘 피트리’ 를 물어보면서 두 단어는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두 단어는 생활 속에서 같은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이라 똑같은 말이라고 간단히 답변 후 그냥 넘어갔었는데 인도네시아 명절도 기념할 겸 이렇게나마 자세히 답변도 해드릴 겸 이번 칼럼의 소재로 꺼내 보았습니다. 먼저 ‘이 둘 피트리(Idul Fitri)’ 는 아랍어에서 온 말로 무슬림의 금식 기간인 라마단이 끝났음을 알리는 의미이자 이슬람의 최대 명절을 뜻하는 말입니다. ‘르바란(Lebaran)’ 이라는 단어는 인도네시아에서만 쓰이는 단어로 이 어원에 대한 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Lebaran은 힌두 전통에서 파생된 단어이며 “끝나다, 지난, 마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슬람이 인도네시아에 처음 들어올 당시 이질적이지 않은 종교로 인식시키기 위해 그 전에 융성했던 힌두교의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와어 “wis bar” 에서 기원했다는 설입니다. 자와어(Bahasa Jawa) “wis bar” 는 인도네시아어로 “sudah selesai” , 즉 ‘이미 끝났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금식 기간이 끝나고 지내는 명절을 일컬어 자와어 어근인 bar > lebar > lebaran 이렇게 어휘가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브타위어(Bahasa Betawi)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입니다. 브타위어로 “lebar” 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어의 lebar, “폭넓은” 과 같은 말입니다. 이는 라마단이 끝나고 마음을 넓게 가져 명절을 기념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의 설 모두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유래가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르바란”이라는 말은 이슬람 최대 명절인 “이들 피트리”와 동의어이고 인도네시아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금식을 하는 라마단을 지냄으로써 자기절제, 음식에 풍요롭지 못한 타인에 대한 이해, 서로에 대한 용서와 화해 등이 “르바란”의 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르바란과 같은 명절 때 어떤 말이나 인사를 인도네시아인에게 건넬 수 있을까요?

우연히 학생과 르바란 명절에 앞서 문자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할 이야기가 다 끝나고 다가 올 명절에 인사를 해야겠다 싶어서 “Selamat lebaran ya(르바란 잘 보내세요)”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갑자기 “선생님, terimakasih, tapi saya tidak berlebaran, hehe..”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는 르바란을 쇠지 않아요.)” 이렇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왜요?”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Saya christian, bukan muslim. Jadi saya merayakan natal. (저는 무슬림이 아니라 기독교 신자예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요.)” 앗!! 이런……. 저의 실수! 인도네시아인에게는 당연할 거라 생각했던 인사말이 무슬림이 아닌 타종교인에게 부적절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위 상황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백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제 학생이 워낙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또 이슬람에 대한 반감을 조금 가지고 있기도 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Selamat lebaran.” 이라고 하는 인사말은 타종교인에게도 이미 일상적인 명절 인사말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보통은 아무런 문제없이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에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정말 가끔은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르바란 및 다른 인도네시아 명절에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나 공휴일에 할 수 있는 말로는 그 명절의 특징과 공휴일이 기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여러 가지 말을 덧붙여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Selamat”이라는 단어가 항상 공통적으로 사용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Selamat”이라는 단어는 우리 주변의 어떤 위험이나 방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안녕이나 건강, 축복, 기도 등을 표현할 때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공휴일에는 “Selamat libur.” (휴일 잘 보내세요.)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 ① 새해 : Selamat Tahun Baru (연도).
- ② 음력설 : Selamat Tahun Baru Imlek (연도).
- ③ 힌두설 : Selamat Hari Raya Nyepi (연도).
- ④ 무하마드 승천일 : Selamat memperingati Hari Isra Mi'raj Nabi Muhammad (연도) H.
- ⑤ 부활절 : Selamat Hari perayaan Paskah.
- ⑥ 근로자의 날 : Selamat Hari Buruh Internasional.
- ⑦ 예수승천일 : Selamat memperingati Hari Kenaikan Isa Almasih.
- ⑧ 석가탄신일 : Selamat Hari Raya Waisak (연도).
- ⑨ 반자살카 데이 : Selamat Hari lahir Pancasila.
- ⑩ 르바란(이들 피트리) : Selamat Hari Idul Fitri (연도) H. Mohof maaf lahir dan batin.
- ⑪ 독립기념일 : Selamat Hari Kemerdekaan RI.
- ⑫ 희생제 : Selamat Hari Idul Adha (연도) H.
- ⑬ 이슬람 새해 : Selamat Tahun Baru Islam (연도) H.
- ⑭ 무하마드 탄신일 : Selamat memperingati Hari Maulid Nabi Muhammad SAW.
- ⑮ 성탄절 : Selamat Hari Natal.

위 인사말들을 보면 대부분이 종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가 상대방과 다르다고 해서 기념일에 인사를 회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종교에 맞게끔 인사를 한다면 더 배려심이 있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또한 모든 종교 기념일을 하나하나 챙겨서 인사하니까요.

슬라맛(selamat)은 ‘슬라맛 빠기(selamat pagi)’, ‘슬라맛 말람(selamat malam)’, ‘슬라맛 잘란(selamat jalan)’ 등등 한국어의 “안녕(히)” 처럼 매일 쓰는 인도네시아어로 친숙한 단어입니다. 이를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 위의 명절 인사말, 축하 메시지, 건강, 기원 등등 여러 상황에서 매우 쓰임이 많은 단어이므로 잘 기억해 두셨다가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 칼럼을 르바란 전에 보내드렸어야 하는데 스스로의 경험에 의존하여 글의 소재를 찾다 보니 꼭 시간이 지나버리고 나서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자님들께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남북한 인도네시아 3개국 친선 축구대회 인도네시아에서 개최



## 아시안게임 앞두고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인도네시아 국가체육회와 MOU 체결

인도네시아 국가체육회 또노 수랏만 회장(Bapak Tono Suratman)은 “아시안 게임 개최 이전에 한국 북한 인도네시아 3개국 친선 축구 대회를 인도네시아 3개 구장에서 개최하겠다” 고 밝혔다.

지난 5월 31일 인도네시아 국가체육회 회의실에서 열린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협약식에 앞서 가진 간담회에서 또노 수랏만 회장은 남북한 인도네시아 3개국 친선 축구 대회 개최 의사를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회장 강희중, 이하 KSAI)는 인도네시아 국가체육위원회(회장 Bapak Tono Suratman, 이하 KONI)와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본지에 알렸다. 지난 5월 31일 KONI 대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강희중 회장은 KSAI의 소개와 실적 그리고 올해 진행 중인 사업들을 설명했다. 강 회장은 “제18회 아시안 게임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양국의 협력과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자” 고 강조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국가체육회 또노 수랏만 회장은 “아시안 게임 개최 이전에 전 종목 선수들을 한

국에 전지 훈련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전처럼 앞으로도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고 발전한 한국의 체육회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인도네시아에 접목하겠다” 고 MOU 취지를 밝혔다.

이날 양 체육단체 MOU 체결식에는 KSAI 강희중 회장, 배응식 감사, 고영철 부회장, 전용무 축구연맹 회장, 최석일 사무국장, 곽영민 태권도 연맹 사범, 천영평 한국 문화원장 그리고 KONI Bapak Tono Suratman 회장과 수뇌부 임원 7명이 함께 참석했다.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KSAI에서는 참석한 KONI임원들에게 메달과 한국 전통 부채를 선물하였고 KONI는 감사패를 교환했다.

제18회 아시안 게임은 2018년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자카르타와 팔렘방에서 개최된다. 또한 남북한 공동입장이 확정되었고 한국은 40여개 종목에 1천여명이 참가할 계획이어서 양국의 협력이 더욱 더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사진 제공 :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사무국)

# 문예총 현판식

## 10월 초 제 5회 문예총 종합예술제 개최 예정

문예총(회장 박형동)은 지난 6월 4일(월), 한인 회관 1층에 위치한 문예총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박형동 문예총회장을 필두로 문예총 임원및 단체장들과 양영연 한인회장, 강희중 대한체육회장, 이명호 총영사, 진영평 문화원장, 최인실 한인회 사무국장, 홍석영 편집장과 문예총 소속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번 현판식을 위해 문예총 현판은 조지안 퍼니처 환경순 사장과 강희중 문예총 고문이 후원하여 주었다.

이어진 임원및 단체장회의를 통해 10월6일경에 개최될 제5회 문예총 종합예술제를 위한 논의를 하였다.

앞서 5월31일에 있었던 단체장 회의를 통해 문예총 제5회 종합 예술제를 비롯한 여러 안건으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눈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제 장소 선정과 일정조율
2. 후원 업체 찾기
3. 참가 단체와 프로그램
4. 공연과 전시 담당 수석 부회장과 담당자
5. 팸플릿을 위한 디자인 담당과 단체별 준비현황
6. 자카르타 팝 오케스트라의 문예총 가입 희망건과 탈퇴요청단체 등

이번 현판식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의 문화교류를 위해 애쓰는 박형동회장을 비롯한 문예총 임원진과 단체장들은 더욱 발전해 나가는 문예총의 활동을 기약하는 바이다.

(글: 허민경 문예총 사무차장)



# 인도네시아 회사법 (9)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전호에서 계속)

7.12.11. 회사등기부는 일반에게 유료 공개이나 법무부장관은 회사등기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채납 혹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회사에 대하여 관할 기관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증자, 감자, 업종 추가, 업종 축소, 상호 변경, 주주변경, 이사회원 개선, 감사회원 개선의 등기를 거부할 수 있으며, 위 사항들의 등기를 거부하는 경우에 일반의 회사의 자료 공개 신청도 거부된다.

## 7.13. 자본금(Modal)

7.13.1. 주식회사법 상의 최소 공칭 자본금은 5천만 Rupiah이나 업종에 따라 해당 업종법에 따라 최소 자본금의 액수를 규제하는 업종이 있으며, 투자법상 외자투자회사의 자본금은 전체 투자규모의 최소 25%이다. 현 투자법상 한 업종 단 최소 투자규모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최소 Rp.100억이기 때문에 총 투자규모가 Rp.150억이면 최소 자기자본금은 Rp.150억의 25%인 Rp.37억 5천만이다.

7.13.2. 회사 설립과 동시에 공칭 자본금의 최소 25%를 발행하고 주주들이 불입하고 적법한 불입 확인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

7.13.3. 현금 출자 이외에 다른 현물 혹은 무형물로 출자도 허용한다. 현물 혹은 무형물로 출자 시에는 시가 혹은 회사, 주,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과 관계가 없는 전문가가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부동산으로 출자 시에는 회사 설립 정관일자 혹은 주주 총회에서 결의한 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동산으로 출자한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7.13.5. 채권의 자본금 전환은 절차법에 따라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7.13.6. 회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사에

서 발행한 주식의 최대 10% 내에서 매입할 수 있으나, 보유가 허용되는 시한은 최장 3년이며, 이 10%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나 이익금 배당권이 없다.

7.13.7. 자본금을 공칭자본금, 발행자본금 및 불입자본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 7.14. 회사의 소재지(Domisili Perseroan)

7.14.1. 회사는 반드시 법적소재지가 있어야 하며, 법적소재지는 인도네시아 영토안이어야 하며, 수도, 주도, 시 혹은 군, 어느 곳이던지 법적소재지로 정할 수 있다. 정관에는 소재지 시(Kotamadya 혹은 Kota Administrasi) 혹은 군(Kabupaten)만 표시해도 무방하다.

7.14.2. 회사는 반드시 주소가 있어야 하며, 공문, 공고, 인쇄물, 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에 상호 및 정확한 주소 기재 의무가 있다.

7.14.3. 회사의 법적소재지를 현재 시/군에서 다른 시/군으로 이전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총을 열거나 전체 주주결의서로 정관을 개정하고 반드시 법무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외자투자회사는 법무부 승인 신청 전 먼저 투자조정청(BKPM)에 투자승인서 상 회사 소재지 변경을 먼저 수속해야 한다.

## 7.15. 회사의 존속기간(Jangka Waktu Perseroan)

7.15.1. 회사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설립일로부터 10년, 20년, 35년 혹은 100년이라고 회사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기한을 정하지 않은 기간 동안 존속한다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7.15.2. 주주총회는 정관상의 요건을 갖추면 회사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15.3. 정관상의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회사를 해산할 수 있다. 주식회사법상 해산요건은 주주총회에 발행주식 최소 3/4 참석으로 성원하며, 참석 주주 최소 3/4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한다.

## 7.16. 회사의 업종(Maksud dan Tujuan Perseroan)

7.16.1. 정관에 회사의 업종을 명기해야 한다. 복수의 업종을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기된 업종의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사업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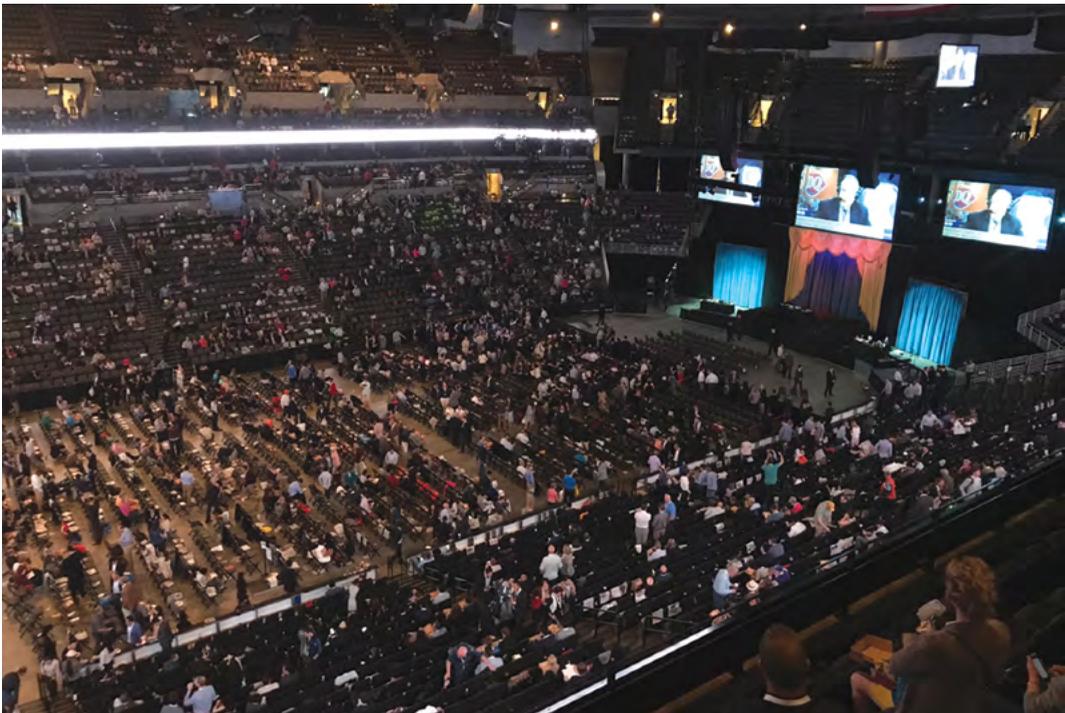
7.16.2. 업종 추가는 법무부에 등기가 필요하며, 주식회사법에서는 겸업을 금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업종법에 복수 업종을 금하는 특별한 업종도 있다.

7.16.3. 주식회사법에서는 회사의 업종에 관하여 아주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의 사업허가

서를 발급하는 투자조정청 및 관할관공서에서는 회사의 업종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모든 업종을 상품 혹은 용역을 기준으로 2자리 숫자, 3자리 숫자, 4자리 숫자 및 5자리 숫자로 업종을 구분하고 업종별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회사의 사업허가서에는 업종과 상품(용역 포함)이 기재되어 있다. 무역회사는 회사의 업종 및 상품을 사업허가서에 정확하게 기재 받고 수입업자 라이선수에도 상품을 정확하게 기재받아야 수입 통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 7.17. 주식(Saham)

7.17.1. 주식의 액면 가액은 반드시 Rupiah 표기하게 되어 있으나 신규 외자투자회사에게는 Rupiah 표기와 US\$ 병용 표기를 허용하고 있으며 처음 내자투자 혹은 일반회사였던 회사가 외자투자로 신분변경 시에는 Rupiah와 US\$ 병용 표기를 불허하고 계속 Rupiah로 표기한다.



7.17.2. 주식에 액면 가액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증권시장법에 근거하여 발행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7.17.3. 이사회에게 회사 내에 주주 명단 비치 의무가 있으며, 주주의 성명, 주소, 수량, 번호, 취득일자, 주식의 종류, 주식 당 불입금액,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 보유자의 성명, 상호, 주소, 양도담보권 취득일자, 등기증 번호 및 부동산으로 불입된 주식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 7.18. 주주의 권리(Hak Pemegang Saham)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은 소유(\*주주)와 경영(\*이사회)을 분리시켜 왔다. 동일인이 주주도 될 수 있으며 이사회원이 될 수도 있으나 법률행위를 주주의 자격으로 하는지 이사회원의 자격으로 하는지 구분되어야 한다. 주식회사법에서는 주주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7.18.1. 주주총회(RUPS)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에게 질의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의견을 개진하고 표결에 부친 안건에 대하여 투표권이 있다. 그러나 주주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개인 신분으로는 주주의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RUPS를 통해서 주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7.18.2. RUPS의 결의에 따라 이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7.18.3. 회사에서 신 주식을 발행시 우선 매입권이 있다.

7.18.4. RUPS, 이사회 혹은 감사회에서 취한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사회는 의무적으로 매년 회계연도 마감 6개월 이내에 연례 주주총회 (RUPS Tahunan)

를 소집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시에 신년 사업계획서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주식회사법과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단 1(한)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라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RUPS Tahunan을 소집하지 않은 이사회는 조치는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민법 제1365조에 규정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사회는 경영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직위가 부여된 감사회가 이사회 불법행위를 묵과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7.18.5. 정관 개정이나, 최근 6개월 이내에 작성된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회사의 순수 자산의 50(오십)% 이상을 양도하거나 담보하는 경우나, 합병 혹은 분리하는 경우에 주주 혹은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되어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공정한 시가에 회사에게 매입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다. “예”를 들면 흑자를 내는 A사와 적자를 내는 B사의 대주주인 C씨가 양사의 대주주인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절세 목적으로 B사를 A사에 흡수 합병하는 경우에 A사의 소주주인 D씨는 자신의 주식을 A사가 정상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D씨의 요구를 A사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D씨는 주식회사법 제62조에 근거하여 A사를 상대로 주식매입 소송을 청구하여 자신의 권리침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

7.18.6. 발행주식의 10(십)%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1(한)명 혹은 다수의 주주는 안건을 밝히고 RUPS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음 호에 계속)

# 통용 중단된 구권 “혈값에 판매” 접근… 국정원 주의 당부

더는 통용되지 않는 북한의 구권(舊券) 화폐를 판매하는 사기 행위가 최근 남북화해 분위기를 틈타 동남아 등지에서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달 태국에서 500만원 규모의 북한 구권 환전시도가 적발되는 등 최근 동남아 일대 국제 범죄조직들이 북한 구권을 대량으로 확보해 밀매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범죄조직은 “북핵 타결로 북한 경제가 발전하면 막대한 환차익이 예상된다”면서 북한 화폐를 시세보다 30~40% 싸게 사들이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이 판매를 시도하는 화폐는 대부분 북한이 마지막으로 화폐개혁을 한 2009년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외국에서 사용·환전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북한 내부에서도 거래가 중단됐다.

이런 사기행각은 동남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하고 있다.

일례로 태국의 한 교민 사업가는 최근 현지인으로부터 북한 돈 2억 원어치를 구매하라는 제의를 받았고, 캄보디아에서도 대북 브로커들이 북한 화폐를 보유해두면 북한 개방 시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퍼뜨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북한 화폐가 최근 세관에 적발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북한 화폐를 보유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강해 이런 사기

피해가 당장 확산할 소지는 작다면서도 “화해 분위기를 틈타 국제범죄조직들이 해외 교민을 비롯한 한국인들을 사기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커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관련국 정보기관과 협력해 북한 구권의 유입 경로와 사기 배후조직 등을 추적하는 한편, 외교부와 협조해 재외공관 홈페이지에도 주의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게시할 방침이다.

사실 북한 구권 화폐 사기는 이전에도 종종 적발됐다. 2009년 북한 화폐개혁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 변화가 있을 때 북한 구권 화폐를 사두면 차후 큰 이익을 볼 것이라는 논리가 동원된다.

실제 2014년 1월 인도네시아에서 2009년 이전 북한 화폐가 대량으로 유입돼 현지인과 한국인 상대로 환전을 시도하다가 자카르타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고 접수되기도 했다.

아울러 2015년 4월 이집트에서도 북한 구권 화폐가 대량 발견됐다. 사기 조직은 카이로의 한국인 교민들을 타깃으로 이를 유통하려고 시도했으며 우리 정부가 역추적에 나서 차단했다.

북한 구권 화폐 5천원권 앞면



(제공:연합뉴스)



## Bahasa Indonesia

### 그리고 문화 이야기



조은숙(한,인니문화연구원 부원장)

누구든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땐 그 끝을 알고 시작하는 이는 없다. 단지, 다 잘 되리라 막연한 상상만 할 뿐.

나도 그랬다. 처음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기 시작할 땐 나도 낯설고 먼 땅 인도네시아가 내 제2의 고향이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남들처럼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고3 입시를 치르면서 선택했던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학과가 지금의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해 준 계기이며 시작이었다.

당시 한국은 동남아를 향해 세계 시장 진출의 산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던 때였기에 나는 과감히 낯선 언어를 선택했고 4년 동안 말레이어는 물론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 전 영역을 공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몇 년 후 같은 과 친구였던 남편의 직장 발령

으로 이곳에 처음 발을 디게 되었다. 늘 책으로, 강의로만 익혔던 인도네시아. 1992년, 길어도 3년이면 되겠지 했던 우리의 인도네시아 생활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에서도 물 좋고 공기 좋고 바람 많고 향기로운 감귤이 흰 눈 속에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성장기를 보낸 나는 인도네시아의 야수와 파아란 하늘과 그늘린 듯한 인도네시아 사람의 하얀 미소가 낯설지 않았다. 단지 가족을 멀리 두고 와있는 그리움이 향수병이 되어 처음에는 1년에 4, 5번씩은 한국을 다니기도 했다.

차츰 적응이 되면서 대학원에서 공부하게 되었고, 인니어 강의와 동시통역, 각종 행사의 사회와 진행을 도맡아 하면서 점차 인도네시아와 그들, 그리고 그들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인니어를 전공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모든 이곳 생활이 쉬웠던 것만은 아니다. 과거 학습 방식이 그렇듯 나도 어휘 암기와 문법 학습에 익숙했던 터라 실제 현지인과의 부딪힘에 어려움이 있었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현지인들과 직접 만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커뮤니티 그룹에도 참여했다. 외우고 또 외웠던 어휘와 문법 들이 현지인들과의 교류와 경험을 통해 교재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온전한 나의 것이 되어 가던 인니어는 종족별, 지역별 문화를 익히고 나아가 그들의 민족성과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인도네시아에도 한류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드라마 가요 영화 이벤트 등 많은 한국 콘텐츠들이 인도네시아를 물들여가고 있었다. 당시 나는 인니어 통역뿐 아니라 우연한 기회를 통해 현지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한류는 나에게 그저 ‘한국인’ 이라서 가르칠 수 있는 한국어가 아니라, 그들이 선호하는 하나의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좀더 바르고 정확하게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한국 사이버대학교에 편입했다. 한국어와 다문화과정을 공부해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받았다. 그리고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강의를 한지도 벌써 7년째이다.

인도네시아어와 문화를 생각해보면 모든 언어와 문화는 일맥상통한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소통이고 소통은 곧 관계이며 관계는 다시 문화로 이어진다.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2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가장 후회하는 것은 정작 인도네시아의 그 아름다운 곳곳을 다닐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인니문화연구원 활동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숨어있는 역사와 문화의 발자취를 다니게 되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자기문화에 걸 맞는

그들만의 표현으로 그들만의 방언으로 말한다. 우린 그 문화를 배워가며 비로소 조화로우며 배운다.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한것은 내 나이 40대였다 배우고 가르치는 기쁨이 이렇게 보람있고 즐겁고 뿌듯한것인지 ...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전파하고자 교원 자격증까지 딴 나는 또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문화와 역사를 이해한 후 아직도 열악한 그들의 생활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지난해 12월, 나는 한국의 한 대학에 편입해 사회복지 2급 과정을 공부하였고 한국을 오가며 실습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받았다. 빠르게 성장해가고는 있지만 부익부 빈익빈이 지속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바라보며 어느 작은 곳에서라도 도움을 주는 내가 되고 싶었다.

3년만 있을 거라고 걱정하고 온 인도네시아 올해로 27년째이다.

갓 태어나 3개월째 되는 아들을 안고 들어온 지가 엇그제 같은데 아들은 벌써 6월의 결혼식을 기다리는 예비신랑이 되었고 이곳에서 태어난 딸은 6월에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다. 아이들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그들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면서도 현지인 친구들과 똑같이 인니어와 능숙한 영어와 중국어를 말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겪지 못한 또 다른 문화를 누리고 있다.

최근 들어 부쩍 많은 한국 아이들이 인도네시아로 전학을 오고 있다. 대부분 한-인니간 원활한 경제, 산업 교류 때문이리라. 인니에 처음 온 아이들은 인니어나 영어에 서툴러 국제 학교 과정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아이들은 적어도 1년이면 그들이 속한 학제 과정을 따라가게 된다. 그만큼 인니어와 인니 문화 적응이 다른 나라보다 좀더 수월한 탓이 아닌가 싶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인도네시아를 리드해 갈 것이다. 그들의 언어와 문화로 역동해 가는 차세대를 기대해본다.

인도네시아에 사는 많은 한국 교민들은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 인니어를 잘한다. 인니어와 한국어가 만들어낸 재미있는 합성어를 웃으며 말하기도 하고 인니어 반, 한국어 반으로 어순을 틀리게 바꿔가며 말해도 친절한 인도네시아 친구들은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독립의 세월이 같은 것처럼 우리의 언어와 문화도 서로 닮은 구석이 많은 걸까? 많은 학자들은 언어와 문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문화는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영향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언어의 구조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들의 세계와 문화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어를 가르치며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 <santai santai>는 ‘한가로운, 긴장이 풀린 릴렉스한 상태’를 뜻하며 <menikmati>는 ‘즐기다. 음미하다’라는 뜻이다. 대체적으로 성격이 급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그것을 충분히 즐기거나 음미하는데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소극적일 때가 많다. 나 역시 그런 경향이 많았다.

인도네시아에 처음 들어와 살면서 제일 먼저 가슴에 와 닿는 단어가 <sabar>였다. 성질 급하고 빠른 우리 성격과 천천히 움직이고 일의 능률이 늦은 인도네시아 친구들을 보며 제일 먼저 인내심을 배웠고, 세월을 두며 다시 깨닫게 되는 그들의 생활문화에서 <santai santai>와 <menikmati>였다. 나는 이제 이 세 단어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한다.

참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 늘 한국은 어머니의 나라요, 향수의 나라요. 고통치는 나의 심장이다. 인도네시아 또한 내가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제2의 내 나라가 되었다. 조국은 늘 그리운 법. 이제 나는 한국에선 인도네시아를, 인도네시아에선 한국을 그리워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만 존재하는 조국이 나에게서 둘이 되어버린,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학생기자 JIS 한영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과정인 IB Diploma는 국제학교를 다니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업을 골라 자신들의 진로와 관련된 재능과 능력을 향상시키며 많은 대학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이다. IB는 International Baccalaureate을 뜻하고 Diploma는 과정을 뜻한다.

이 교육과정은 6개의 필수 과목들과 Theory of Knowledge, Extended Essay 그리고 CAS (Creativity, Activity, Service)라는 과목들로 구성 되어있다. 6개의 과목에는 Language Acquisition (언어),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영어), Individuals And Societies (사회), Mathematics (수학), The Arts (예체능), 그리고 Sciences (과학)이 있다. 이 과목들만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교육 과정의 증명서를 얻기 위해서는 나머지 3개의 과목들도 수행해야 한다. 나머지 3개의 과목들은 과목이라기 보다 활동에 가까운데 Theory of Knowledge이라는 철학적인 과목을 빼고는 여러가지 활동들을 통해 Extended Essay와 CAS (Creativity, Activity, Service)를 시행해야 한다. 먼저 Theory of Knowledge의 다른 과목에서는 세상에서 발생했던 여러가지 사건들과 여러가지 이론들에 대해 가르친다.

Extended Essay는 IB Diploma를 하는 학생들이 교육 기간 동안 적는 4000단어의 연구 논문이다. 이는 개인별로 하며 학생이 원하는 아무 분야에 대해 세밀하게 연구 논문을 적는 것이다. CAS (Creativity, Activity, Service)는 우리나라 고등 과정에 비한다면 봉사활동 같은 것인데 한 분야당 50시간을 채워 총 150시간을 채워야한다.

여기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CAS 활동들이 있는데, 이 분야들이 적용되는 활동들을 학생들이 자진해서 신청하여 이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공부에서만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 외적인 능력을 여러가지 활동들을 통해 높이고 보여주는 것이다.

학생들은 6개의 필수 과목에서 자신들이 전공하고 싶은 과를 위해 필요 없는 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채울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한 학생이 공과 대학을 가고 싶다면 예체능 과목을 대체하여 공과 대학에 도움 될 수 있는 과학 과목을 하나더 수강한다. 그래서 총 두개의 과학 과목과 수학, 언어, 영어, 사회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6개의 필수 과목에는 각 한 과목에 다양한 과목들이 있는데, 다른 말로 필수 과목을 분야로 말하자면 한 분야에 여러 과목이 있는데, 이는 학교마다 다르다. 학교에서 한 분야에 여러 과목을 학생들에게 제공 된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IB를 하면서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CAS 활동도 학교에서 IB Diploma를 제공하여 자격이 주어진다.

과목당 1년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은 2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야 한다. 이는 과목들의 교육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11학년 과정과 12학년 과정을 연달아서 총 2년을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11학년 1년의 과정이 한 과목의 반을 차지 한다는 것이다. 이 교육 과정의 성적 시스템은 1~7점까지 주어지며 (7점=A+, 6점=A, 5점=B, 4점=C, 3점=D, 2점=E, 1점=F) 이것이 총 45점 만점으로 구성 되는데, 6개의 과목의 만점이 42점이고 나머지 3점은 Theory of Knowledge 과 Extended Essay의 점수로 채워진다.

이 교육과정은 절대 쉽지 않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 교육과정을 거쳐 증명서를 얻게 되면 크게 가치 있게 여긴다. 말했듯이 교육과정이 정교하고 세밀하게 구성된 것을 보면 대학들이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6개의 필수 과목과 3개의 과목들이 한 학생의 능력과 가치를 다 보여주기 위해 대학에서 학생의 평가로 인정하는 것이고 학생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이다.

# 제 60 회 한국어능력시험 공고문

## ■ 실시 안내

원서 접수 기간: 2018년 07월 27일(금) ~ 08월 7일(화) (08:00~15:00)

원서 접수 장소

지역	원서 접수 및 문의처	연락처
JAKARTA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행정실	021-844-4958
YOGYAKARTA	Universitas Gadjah Mada (UGM)	027-451-3096
BALI	발리한국학교	0361-464-333
BANDUNG	Universitas Pendidikan Indonesia (UPI)	0821-1566-6969

원서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응시 수수료: IDR 150,000(TOPIK I), IDR 250,000(TOPIK II)

- 환불 가능 기간 : 2018. 07. 27(금) ~ 2018. 08. 09(목), 해당 기간 이후 환불 불가

원서 접수 시 준비물 : 증명사진 3매(3cm×4cm), 신분증(한국인은 여권) 사본 1부,  
응시 수수료

성적 발표: 2018년 11월 29일(우편물은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음)

- 성적증명서 배부는 접수처의 지침에 따름
- 성적증명서는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www.topik.go.kr)에서 무료 출력 가능

## ■ 시험 시행

시험 일자: 2018년 10월 21일(일)

시험 장소: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족자카르타 UGM 대학교, 발리한국학교, 반둥 UPI 대학교

시험 시간(현지 시간)

구분	교시	영역	입실	시작	종료	시험시간	비고
TOPIK I	1교시	듣기	09:10	09:40	11:20	100분	오전
		읽기					
TOPIK II	1교시	듣기	12:20	12:50	14:40	110분	오후
		쓰기					
	2교시	읽기	15:00	15:10	16:20	70분	

## ■ 시험 안내

입실 시간: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입실

응시자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사진과 인적사항이 포함된 신분증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신분증) \*수험표는 시험 당일 배부 (\*반드시 응시료 영수증 지참)

응시자 유의 사항

- 듣기/읽기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양면사인펜(시험장에서 배부)으로 작성
- 쓰기 답안은 감독관이 배부한 양면사인펜의 얇은 부분으로 작성
-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 전에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함.
-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은 유인물 참조
- 시험 수준별(TOPIK I, II) 지원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 시험 시행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전화 021-844-4958)으로 문의 바랍니다.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장

## 2018 임원 찬조금 납부 명단

기준: 2018.5.1.~ 6.28.

번호	성명 및 직책	회사명	금액		비고
			루피아	달러	
52	승은호 명예회장	KORINDO GROUP		20,000	
53	이호덕 부회장	PT. VICTOR JAYA RAYA	67,500,000		
54	정무웅 자문위원	KORINDO 장학재단		1,000	
55	백인현 이사	PT. CKD OTTO Pharmaceuticals	13,500,000		
56	홍기호 이사	PT. AURORA INT'L CO.	13,500,000		
57	신기업 명예고문	PT. HANINDO EXPRESS UTAMA	67,500,000		
58	노예범 이사	PT. SAM PUTRA INTI	13,500,000		
59	신호진 이사	PT. SAUDARA UTAMA INTERNASIONAL	13,500,000		
60	유주완 이사	PT. FEEL BUY INDONESIA	13,500,000		
61	이철훈 이사	PT. INDO BOX UTAMA JAYA	13,500,000		
62	정용완 이사	PT. HUNG A INDONESIA	27,000,000		2017년 및 2018년
63	*무기명 납부		13,800,000		3월 15일, 우리은행
총 금액			1,945,202,000	42,000	

\*무기명 입금인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18 개인희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 기준: 납부일 순

번호	성명	금액(IDR)
76	이철훈	300,000
77	정용완	600,000
78	김희순	300,000
79	홍인화	300,000
80	신기업	300,000
81	신호진	300,000
82	노예범	300,000

## [안인외 외비 납부 안내]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실명 위기의 김모씨(53세, 끌라빠가당 거주)에게 눈수술을 위한 수술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한인회는 김모씨가 2016년 8월9일 출국하여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인구조단(사단법인 월드쉐어)과 연계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이렇듯 한인회비는 어려움에 처한 한인동포들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양영연 배상

###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 외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한인뉴스는 <소개합니다> 코너를 통해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의  
인사동정 및 새로 연 사업체를 무료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인뉴스 편집국 (Tel. 021-521-2515/

haninnewsinni@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정성껏 실어 드리겠습니다.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오롬컨설팅  
PT. 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Graha Surveyor Indonesia b/d Mezzanine Floor  
Suite Mz A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Selatan

Telp: 021 2944 0401 /2 /3 /4 /5  
Email : visa.orom@gmail.com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58	7650 6040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상고(정천수)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5	1906 0877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58 76506040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윤)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송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 / 법인 / 인허가 / 비자 / 채용 / 부동산 / 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



## 우리투어

Tel : 021-794-0422 / 021-7919-9201  
HP : 0811-1742-081  
Kataalk ID : uritour88  
Email : master@uritour.org

www.doowang.net

##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가을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뵈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sup>th</sup>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Law Firm  
INDOYANG & PARTNERS

법무법인 인도양

강력한 변호사 팀 / 확실한 법적 해결  
형사 · 민사 · 세무 · 투자 · 국적

김종성(변호사/ 대표Partner): UI대 법대졸, UI대 법대 대학원졸

HP : 0815-8690-3000 Email : cskim@indoyanglaw.com 또는 cskim.indoyanglaw@gmail.com

Korea Center Building, Suite 605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Indonesia Telp : 62-21-5273077 / 8 Fax : 62-21-5207212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중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항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가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가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법연중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가구

쥬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이룸황성주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앙비 렌탈	08111	43437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마루노래방	027	2831 869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	-----	------

2018년 한인 문예총

<회장단 & 집행부>

박형동 회장/한바패 회장

채영애 감사

사공경 고문

강희중 자문

신돈철 자문

이수진 수석 부회장 겸 사무국장

허민경 사무차장/스트링 오케스트라

김경애 전시 수석부회장/한지공예

이은수 전시부회장/미협

김혜정 전시부회장/헤리티지

정재익 전시부회장/서협

김영희 공연 수석부회장/아르떼 여성합창단

김일순 공연부회장/한바패

박의태 공연부회장/색소폰

박정욱 공연부회장/극동방송 합창단

손창진 공연부회장/아버지 앙상블

정방울 공연부회장/한국무용

<17개 소속 단체장>

극동방송 합창단 단장: 신정일 0811 924 328

국악사랑 회장: 장방식 0811 902 003

루시 플라워 회장: 최정순 0811 834 026

문인협회 회장: 서미숙 0812 8178 050

미술협회 회장: 신돈철 0878 5480 4815

색소폰동호회 회장: 박의태 0811 876 547

서예협회장: 송관원 0816 1840 762

스트링오케스트라단장: 허민경 0812 1316 2064

아르떼 여성합창단장: 채영애 0816 745 384

아버지앙상블단장: 변영극 0815 9101 898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안영수 0811 9005 639

월화차 회장: 이춘순 0878 8333 3359

음악협회 회장: 채영애 0816 745 384

한국무용 단장: 정방울 0811 1636 210

한바패 회장: 박형동 0811 149 586

한지공예 단장: 김경애 0815 1941 1756

헤리티지코리아섹션 회장: 이수진 0816 1300 210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고주몽	7279 6709
	8984 1000
김균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0 7530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0254-848 4111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	722 1852
소래포구	8990 5051
씨티서울	515 0415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유미	720 7464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2751 7370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깜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야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파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북	3005 1650
요리가	4584 4502
본가 (족자카르타)	027 4436 1301
치맥 (족자카르타)	027 2831 440

**ICHTHUS SCHOOL**  
A Christian School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PRIMARY | SECONDARY | A LEVEL

**OPEN REGISTRATION**  
For New Academic Year

For more information:  
South Campus | T: +6221 7590 8820  
West Campus | T: +6221 581 2228

www.ichthusschool.com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2930	6886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시티안경원	726	5009
-------	-----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라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18	4239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빔)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보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오롬컨설팅	2944	0401/2/3/4/5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인재채용**

JAC Recruitment	315	9504
-----------------	-----	------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북공하숙(리보찌까랑)	0813	1415 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 게스트하우스	0858	1442 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보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	8515 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명 하숙	0852	1757 5525
세노파티코리아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쉴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	6074 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풀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1	888 9609
한발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박학천논술	4586 7844
에세드라아트스쿨(리브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0813 989 22222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널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얏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수출·무역**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발리 (지역번호 0361)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TOUR 261 105  
 MATAHARI KOREA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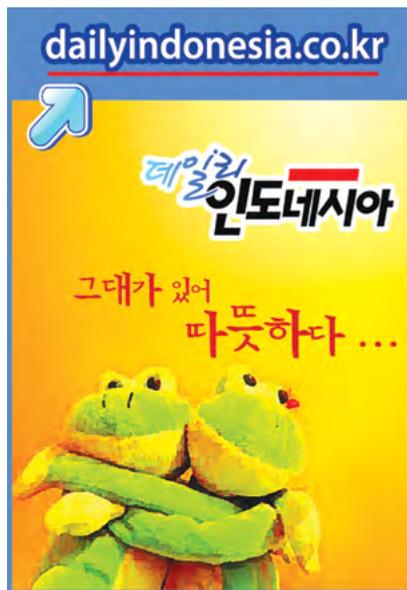
반둥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둥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2018 재인니 대한체육회

구분	직책	성명	휴대폰
집행부	회장	강희중	0816-798-221
	사무총장	방진학	0811-198-282
	감사	배응식	0811-993-7651
	사무차장	최석일	0811-888-9609

협회	검도협회장	강희중	0816-798-221
	탁구협회장	곽봉규	0815-1410-4167
	볼링협회장	김송정	0816-716-293
	용무도협회장	김태화	0811-188-2938
	골프협회장	한현봉	0811-111-5800
	스쿼시협회장		
	태권도협회장	방진학	0811-198-282
	축구협회장	전용무	08111-009-252
	테니스협회장	정영규	0821-1032-624
	야구협회장	이창균	0815-1443-0000

# 지역한인회 주소록

현재 2018.1.23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발리한인회	회장	윤 경 희	0811-385-841
		부회장	편 성 호	0812-389-0694
		총무	송 학 자	0812-362-3000
		총무	손 민 석	0858-5732-0669
2	반동한인회	회장	엄 정 호	0812-201-8309
		수석부회장	편 대 영	0813-2145-7997
		사무국장	오 명 근	0812-115-1004
		사무 차장	남 상 일	0812-2400-0303
3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수석부회장	주 정 만	0812-704-5030
		사무국장	정 규 철	0812-701-6090
		총무	이 상 구	0821-7356-8405
4	보고르한인회	회장	이 철 춘	0811-112-179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메단한인회	회장	홍 상 철	0811-160-8724
		총무	손 근 환	0812-655-9418
6	수카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111-5208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7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회장	배 춘 식	0811-332-4001
		수석부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사무총장	김 태 현	0818-321-332
		수석총무	우 상 화	0817-500-1042
		총무	배 기 보	0812-3251-5518
8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회장	김 소 웅	0811-278-8909
		사무총무	이 승 현	0811-978-0282
9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배 석 기	0816-1844-165
		총무	조 용 재	0815-4880-0256
10	즈파라한인회	회장	문 창 윤	0822-2220-8123
		수석총무	조 영 성	0813-9032-3355
		총무	양 세 환	0822-2719-9135
11	땅그랑반뜰한인회	회장	오 세 명	0816-187-8582
		사무국장	허 미 숙	0818-660-732
12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	이 재 호	0811-444-190
		총무	한 정 곤	0811-419-200



#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전화번호 안내

- 시 내.....108  
Directory Service(City)
- 시 외.....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 국제 전화.....001,008

## ■교통기관

- 수카르노 하타 공항 안내.....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1)7917 1234  
(24시간 접수)
- 고속도로 정보.....801  
Toll Road
- 교통사고.....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 열차시간안내.....121  
Station Gambir
- Station Kota.....021)692 8515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 한국대사관.....021)2967 2555
- 영사과.....021)2967 2580
- 재인도네시아한인회.....021)521 2515
-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0812 1960 308

## ■항공사 안내

- 대한항공(시내).....021)521 2180  
(터미널3).....021)8082 2198/9
- 가루다(Call Center).....021)2351 9999  
0804 1807 807
- 아시아나 항공(시내).....021)5721 381~3  
(공항).....021)5591 3229

## ■우편

-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1)384 4188

## ■각종 고장 문의

- 전기고장 문의.....123
- 전화고장 문의.....147
- 수도고장 문의.....021)57986555

# KORINDO Plants the Gre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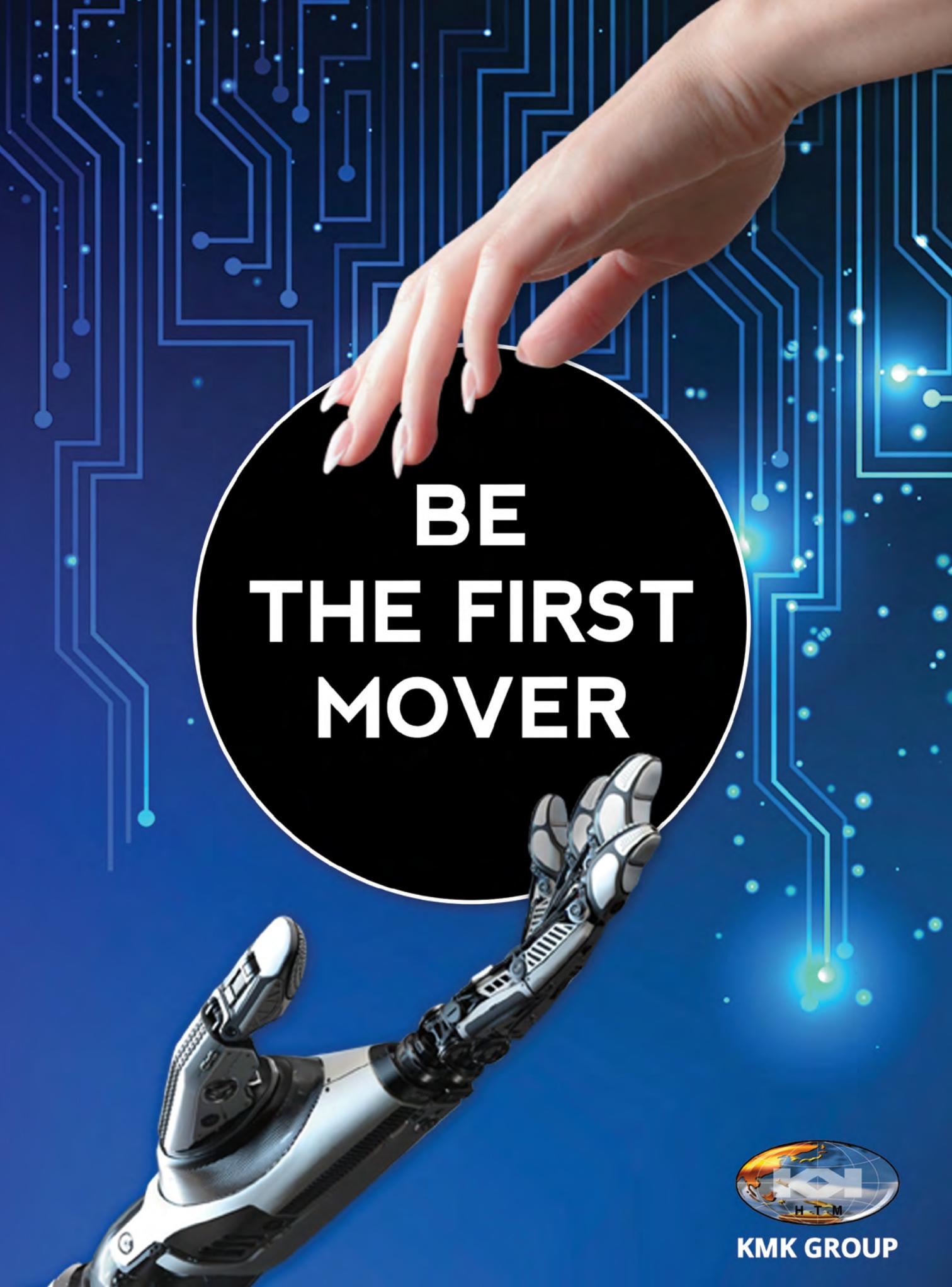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사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Forestry Management
- Timber Plantation
- Oil Palm Plantation
- Rubber Plantation
- Plywood
- Plant
- Special Vehicle
- Battery Separator
- Coal & Limestone Mining
- Finance
- Total Logistics
- Shipping Division
- Engineering & Construction
- International Business Div.
- Real Estate Management
- Rest area & Gas station
- SG Consulting
- Wind Tower
- Newsprint & Printing / Writing Paper
- Wood Chip/ Veneer/ Sawn Timber/ Wood Pellet



**BE  
THE FIRST  
MOVER**



**KMK GROUP**